

7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43.96	↓ 코스닥	824.37
	(-58.41)		(-15.08)
↑ 금리 (미국 9년)	3.887	↑ 환율 (원-달러)	1307.90
	(+0.010)		(+10.60)

공공 건설 하도급 금지 등
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추진



02

멀어지는 금리인하... 해외 IB, 韓 물가 전망치 올렸다

〈투자은행〉

중동전쟁 발발 유가 등 변동성 확대
JB모건 등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
내년 韓 물가상승률 2.4% 예상
한 달 전보다 0.2%p 더 높여
“금리인하 내년 6월 이후 될 것”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들쭉이며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내년 우리나라의 물가가 전년 대비 2.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물가의 둔화시기가 더더 질수록 금리인하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 이달 말 발표하는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전망한 내년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2.4%로 집계됐다. 한 달 전 발표된 전망치 2.2%보다 0.2%p 높은 수준이다. 투자은행은 바클레이즈, 밴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씨티, 골드만삭스, JB모건, 홍콩상하이은행(HSBS), 노무라, UBS 등 8곳이다.

노무라증권은 물가상승률을 1.7%에

〈경제전망보고서(8월): 성장·물가 영향 대안적 시나리오〉

시나리오	성장 및 물가 영향 대비 (baseline, %p)	
	2023년	2024년
① 주요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흐름 지속 및 경기 조기반등 I	▶ 성장 +0.1 ▶ 물가 +0.1	▶ +0.2 ▶ +0.3
② 중국 부동산 부진지속에 따른 성장세 추가 약화	▶ 성장 -0.2 ~ -0.1 ▶ 물가 -0.1	▶ -0.3 ~ -0.2 ▶ -0.3
③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추가 상승	▶ 성장 -0.1 ▶ 물가 +0.0	▶ -0.1 ▶ +0.1

한국은행

서 2.3%로 0.6%p, 홍콩상하이은행(HSBS)은 2.1%에서 2.5%로 0.4%p 올렸다. 평균치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투자은행은 노무라증권·UBS(2.3%)과 JP모건(2.2%) 등 3곳이다.

투자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높인 이유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6.89달러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던 3월 20일 70.31달러와 비교해 16.58달러 올랐다. 지난 9월 96.75달러까지 오른 뒤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은도 이달 말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은은 지난 8월 올해 물가상승률을 3.5%,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4%로 내다봤다. 당시 물가전망치에 반영된 국제유가가 84달러인 만큼 인상분을 추가해 물가상승률이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말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환율 등의 변동성이 확대돼 향후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에는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이 3% 수준으로 내려오고, 내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사태로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당시 내놓은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5% 이상이 될 확률이 크다.

한은은 지난 8월 대안적 시나리오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등으로 원자재가격이 추가 상승할 경우 2024년 물가가 0.1%p 추가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같은 예상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3.5%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10월 기준 평균 3.6%(상반기 4.0%·하반기 3.3%)로 전망치를 0.1%p 벗어난 상태다. 0.1~0.2% 이상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전망치가 오르면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겠지만,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고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물가목표를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며 “금리인하의 최우선 조건은 물가안정인 만큼, 내년 6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경기부진 완화 불확실성 여전”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등 경기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나 대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대외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부진과 관련해 KDI는 10월 경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1.3%)보다 높은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광공업생산(3.0%)은 IT수요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이(8.4%→23.7%)이 크게 증가했다.

KDI ‘11월 경제동향’ 보고서

9월 전 산업생산 2.8% 증가율
IT 수요 회복에 반도체 생산 증가
제조업 가동률 73.2%, 재고 감소
10월 수출 반도체 등 부진 완화

서비스업생산(2.2%)은 지난해 기저 효과 탓에 1년 전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그럼에도 전월에 비해서는 여행수요가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2.4%), 운수 및 창고업(2.2%) 등을 중심으로 0.4%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3.2%로, 전달에 이어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또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이 124.3%에서 113.9%로 줄어들었다.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된다.

10월 수출(-4.4%→5.1%)은 반도체를 비롯한 다수 품목에서 부진이 완화됐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8.5%→17.3%)이 대폭 증가했고, 중국 수출(-17.6%→-9.5%)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미국 등 긴축 통화정책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돼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KDI는 “미국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이 파급되며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내수 경기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현대차·기아 ‘공격 투자’... 포드·GM 등은 ‘속도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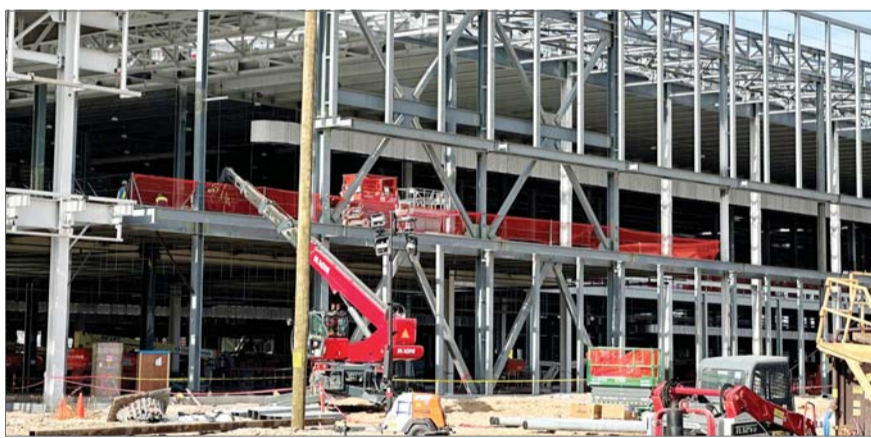
‘전기차 성장 둔화’ 엇갈린 대응

국내 완성차, 전용공장·생산 확대
해외 업체, 투자 줄이고 공장 연기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 대한 엇갈린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글로벌 전기차 생산 기지 확대와 전기차 배터리 개발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이는 반면 포드와 GM(제너럴 모터스) 등은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 생산·투자 속도 조절 방침을 내놓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는 802만대 판매되며 전년 대비 67.9% 성장했다. 지난 2020년 222만대 수준이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21년 471만대로 두배 이상 성장한 것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글로벌 전체 완성차 판매량은 8063만대로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미 조지아주 엘라벨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HMGMA는 메타플랜트 착공 1주년을 맞아 공사 진행률을 공개하면서 생산 시설 기초 공사를 99.9% 완료했다고 밝혔다. AP/뉴시스

전기차 비중은 2020년 2.9%, 2021년 5.9%, 2022년 9.9%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완성차 업체의 온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 완공하는 쪽

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연산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완공하고, 현지 생산 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오는 13일 국내 최대 자동차공장이자 현대차 생산 거점인 울산 공장 내 23만㎡(약 7만1000평) 부지에 2조원 가량을 투자해 짓는 전기차 전용

신공장을 착공한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 4월 경기도 화성 기아오토헨드에 전기차 전용 신공장을 착공해 현재 건설중이다. 약 3만평의 부지에 1조원 규모를 투입해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짓는 중이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올해 4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산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2030년에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대까지 확대하고,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총 생산량을 364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KG모빌리티(옛 쌍용차)는 최근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와 손잡고 국내에 배터리팩 공장을 짓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 출시를 위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동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KG모빌리티는 중형 SUV 토레스의 전동화 모델 ‘토레스EV X’를 최근 낮은 가격에 출시하고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4면에 계속〉

/양성문 기자 ysw@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 총리 “킬러규제 혁파·투자 인센티브 강화...최고의 투자 환경 조성”
▲ 원희룡 국토부 장관, 與 지도부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요청 /사진 뉴시스

▲ 김종민 “선거제 병립형 퇴행 안돼... 위성정당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 홍익표 “중소기업 경영성 부당 알아... 상생협력 만들어낼 것”



▲ ‘대장동 의혹’ 5차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유동규와 법정서 마주 /사진 뉴시스
▲ 유병호 소환 불응에... 여 “재판 안 가는 분도” vs 야 “체포영장 청구”

안전직결 시공 하도급 금지...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

서울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발생시 원도급사 재시공 2년간 입찰제한, 업체 목록 공개도 근로자 '기능등급 승급 교육' 지원

서울시가 반복적인 부실 공사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장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4월 인천 L 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위험이 시민 삶과 아주 가까운 곳까지 와 있고, 언제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시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사업 추진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산재돼 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부실공사 제로'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초강력 제재에 나선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즉시 재시공토록 선조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열린 부실공사 제로 추진계획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치해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터키 등 대형공사 입찰 참가가 최대 2년간 제한된다. 또 시는 부실공사 업체 목록을 서울시보에 게재해 이들 업체가 민간공사를 수주할 때도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는 입찰 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철근·콘크리트·교량 등 시설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기술 보완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

액 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을 원천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장의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이나 건축주가 요청하면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를 통해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토록 한다.

민간 공사장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이 일반 건축물의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감리비는 공공에 예치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 근로자의 시공 능력 향상을 목표로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한다. 숙련공이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기능등급별 노임단가 차등 적용을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

해 근로자 현장 투입 전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와 품질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가격 중심의 입찰 제도도 개선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합제)'의 '기술 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합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시는 건설 품질을 우선시하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협회는 공공기관·민간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로 구성된다. 시는 발주자가 책임감을 갖고 공사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오 시장은 "건설 산업에 구조적으로 뿌리박힌 관행과 의식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서 선진 건설문화를 정착, 안전하고 품격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영·호남 민생 살피는尹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해 미나리를 살펴보고 있다(왼쪽). 김건희 여사는 전남 순천 풍덕동 아랫장을 방문해 나물 및 야채를 구매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투기거래 목적 헤지펀드 시장참여 불허”

기획재정부, 외화건전성협의회 내년 1월 시범 운영 후 7월 시행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성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의 시장 진입은 불허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기거래가 시장을 흔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내년 1월 시범 운영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

김 차관은 "구조 개선으로 시장 안정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시장참여는 불허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은행 간 시장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관리 기능을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거래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거래시간도 제약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했다"며 "이를 통해 유입된 투기거래 수요가 시장을 흔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1997년 도입된) 기존 외환시장 체계가 20여 년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 경제에 낡고 불편한 옷이 됐다"며 구조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빚장을 풀고 개장 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7월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외국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에 30여 개사가 참여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외화건전성협의회는 외환부문 유관기관의 정보 공유, 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차관급 협의체다.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부담없는 소비위해 물가안정 노력해 달라”

방문규 산업장관, 코세페 간담회 '소비위축 타개' 기간 20일까지 연장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앞두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통업계를 만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연장하고 할인폭을 크게 키웠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방 장관은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국가대표소상공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한채양 이마트 대표,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가 참석했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전자와 자동차 업계에서는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오세기 LG전자 부사장, 정현철 현대차 상무 등이 자리했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오는

20일로 연장했다. 자동차, 가전, 식품, 생활용품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가 펼쳐진다.

대형마트에선 신선·가공식품, 생필품, 레고 등 인기연구 초특가 할인행사가 준비됐으며, 백화점의 경우 패션·뷰티를 중심으로 상품권 증정, 제휴카드 혜택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가전은 여러 품목 구매시 포인트 혜택, 풍성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자동차는 차종별 최대 17% 할인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제공한다.

방 장관은 "최대 17% 할인행사를 준비 중인 자동차 등 제조업체와 신선식품 최대 50% 할인 등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유통업계의 적극적 동참에 감사하다"며 "국민들이 코세페 기간 동안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엑시노스에 '생성형 AI' 접목...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 연다

SAMSUNG

자체 AP 통해 MX부문 실적 제고
외부연결 없이 AI 구현·적용 계획
엑시노스 2400, S시리즈 탑재 전망



삼성전자의 AP 엑시노스 /삼성전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4분기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MX(모바일) 부문이 또 한 번 삼성전자의 '실적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설계한 모바일 AP '엑시노스 2400'가 내년 1월 출시될 갤럭시 S24 시리즈에 탑재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7일 증권 업계의 전망치 종합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 분기(5900만대) 대비 4.9% 감소한 5610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IT 전방 수요의 더딘 회복과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15시리즈의 선전으로 삼성전자 MX 부문이 3분기보다는 주춤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에 삼성전자는 4분기를 연말·연시 쇼핑 시즌을 노린 프로모션과 S시리즈 외에도 갤럭시 A시리즈, 갤럭시 S23 FE(팬에디션) 등 중저가 스마트폰을 꾸준히 공급해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다음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24 시리즈에는 삼성전자의 자체 모바일 AP인 '엑시노스'의 부활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AP는 스마트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요 부품이다. 하나의 칩셋이 CPU(중앙처리장치), GPU(그래픽처리장치), 5G 통신 칩 등 필수 기능을 지원한다.

삼성전자 측은 "S24 모델에 어떤 AP가 들어갈지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엑시노스2400의 신모델 탑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삼성전자로서도 3분기 실적을 부문의 선전으로 방어했지만 그룹 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사 제품에 자사 반도체를 탑재하는 숙제를 해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갤럭시S24에 엑시노스가 채택되면 갤럭시S22에서 발생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논란)' 이후 플래그십에 엑

시노스가 등장하는 것은 2년 만이다. G OS 이슈를 불식시키기 위한 초강수로 '갤럭시S23'에 미국 퀄컴의 AP를 전량 사용하기도 했기에 엑시노스2400의 등장은 삼성전자의 '도전'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는 엑시노스2400과 스냅드래곤을 병행 사용하고 울트라 모델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탑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엑시노스 탑재설'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두 편으로 나뉜다. '전작처럼 발열이 걱정스럽다'는 반응과 '전작 대비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 들어 기대된다'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향상된 AP가 활성화시킬 '생성형 AI' 기술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다니엘 아라우조 MX사업부 기획 그룹장(상무) "향후에도 스마트폰이 AI의 가장 중요한 액세스 포인트일 것"이

라며 온디바이스 AI 기술 등을 준비 중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외부와 연결하지 않아도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현해 적용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 기술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 디바이스 AI가 활성화하면 대용량 데이터가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자신의 디바이스 안에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일이 편리해진다.

특히 생성형 AI를 통해 사진·메시지·음성 인식 등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에 적용되면 사용자의 편의와 정보 보안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기의 대용량화가 주류가 됐고 동시에 사용자의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빨리' 처리하느냐가 중요해졌다"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AP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삼성전자 경제현 사장이 삼성 AI 포럼에서 온라인으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혁신 등 AI 시대 준비

삼성 AI 포럼 2023
짐 켈러 등 세계적 석학 참여
'AI·CE 챌린지' 16개팀 선별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석학들과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한다. 반도체 전설 짐 켈러 텐스토렌트 CEO도 구조 설계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7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삼성 AI포럼 2023'을 개최했다.

삼성 AI포럼은 세계 석학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로 7회째를 맞았으며, 8일에는 서울 삼성 R&D 캠퍼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올해 행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초거대 AI'를 주제로 했다. AI와 컴퓨터 공학(CE) 분야 석학과 전문가, 학생들까지 1000명이 참석했다. 차세대 반도체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 AI·CE 최고 석학 강연

특히 이번 포럼에는 AI 부문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요슈아 벤지오 교수와 전설적인 반도체 설계자로 불리는 텐스토렌트 짐 켈러 CEO가 기조연설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온라인을 통해 '안전한 AI 연구자 시스템을 향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발전한 AI

기술이 개발 의도를 벗어나는 사태를 방지하는 안전한 AI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소개했다.

짐 켈러 CEO는 '자신만의 실리콘을 소유하라'를 주제로 차세대 반도체 설계 혁신을 통한 AI 기술 한계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개방형 하드웨어 설계 자산인 RISC-V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구조 설계 혁신을 통해 차세대 AI 가능성도 강조했다.

◆ 미래 인재 발굴도

아울러 삼성전자 SAIT는 '삼성 AI 연구자상'과 '삼성 AI·CE 챌린지' 수상자를 발표하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 발굴 노력도 이어갔다. '삼성 AI 연구자상'에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제이슨 리(Jason Lee) 교수 등 5명을 선정했고, '삼성 AI·CE 챌린지'는 1481명 410개 팀 중 16개팀을 선별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 SAIT는 ▲우수 논문 포스터 발표 ▲AI·CE 분야 연구 과제 전시 ▲연구자 간 네트워킹 행사 등 AI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제현 사장은 온라인 개회사를 통해 "학계와 산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포럼이, AI와 반도체 기술을 통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방법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NH농협금융

금융의 모든 순간

SINCE 1965

NH농협생명

58년 동안 한결같이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밝혀 온 NH농협생명.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의 인생을 비추겠습니다.

100년 NH농협생명이 든든한 빛이 되겠습니다

내맘같이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NH농협생명이 응원합니다

NH농협생명

가성비로 안방 공략하는 中 TV... 韓, 프리미엄 상품성 자신감

출하량 세계 2위, TCL 韓 법인 설립 韓지사서 제품 유통·AS 거점 운영 샤오미, 국내서 'TV A Pro 3종' 출시

삼성·LG, 타이젠·WebOS 적용해 콘텐츠제공 등 경쟁 우위 확보나서

중국이 TV왕국 한국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 수량을 기준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는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지키는 한국에서도 저변을 확대하며 '호랑이굴'을 공략하려는 모습이다. 국내 TV 업계는 콘텐츠 경쟁력에 프리미엄 전략으로 시장 주도권을 지킨다는 전략이다.

◆ 중국 TV 국내 출시

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TCL은 최근 네이비 스마트 스토어에 공식 쇼룸을 개설했다. 회사 정보는 '티씨엘일렉트로닉스코리아' 유한회사로, 대표는 류런이다.

TCL은 글로벌 TV 시장에서 수량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는 2위 업체다. 옴디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점유율이 12.4%로 LG전자(11.3%)도 앞서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TCL은 코스트코와 쿠팡 등 유통업체들이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높여왔지만, 품질 보증이나 애



샤오미 A PRO 65형 모델.

퍼트 서비스 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TCL은 앞으로 한국 지사를 통해 제품을 유통하고, 전국에 38개 AS 거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단 고객 센터와 SNS 메시지 등에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샤오미도 최근 국내에 TV A Pro 3종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을 시작했다. 샤오미가 국내에 공식적으로 TV를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샤오미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TV 브랜드다. 상반기 점유율이 6%로 중국보다는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샤오미는 국내에 따로 법인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국내 유통사들과 총판

계약을 통해 제품을 들여와 온라인 판매에 주로 의존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용산에는 샤오미 라이트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매장도 운영하고 있으며, TV의 경우 홈플러스 강서점에도 거점을 마련했다.

중국 3대 TV 브랜드 중에서는 하이센스만 국내에 공식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상태다. 하이센스는 옴디아 발표 출하량 기준 상반기 점유율이 11.7%에 달한다. 국제 경기에도 후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대신 TCL과 마찬가지로 코스트코 등 유통 업체를 통해 판매 중으로, 국내 중소기업과도 협업하고 있어서 진출 가능성은 적지 않은 상태다.

◆ TV왕국에 왜?

그동안 국내 가전 시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버티고 있어 해외 브랜드들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다. 특히 TV는 디스플레이 패널 경쟁력도 압도적이라 좀처럼 해외 브랜드에 자리를 내주지 않아왔다.

그럼에도 중국 TV가 국내 진출을 본격화한 이유는 '가성비'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중국 LCD 패널 제조 능력이 한국 수준으로 올라선데다가, 안드로이드 OS를 활용하면서 스마트 TV 품질에서도 격차를 크게 좁혔다.

TV 시장이 오랜 침체를 겪는 상황,

LCD 패널 가격도 크게 떨어지면서 물량 공세를 펼치기 좋은 시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중국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를 활용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추측이다.

◆ 상품성 차이 커

다만 국내 TV 업계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미 TV 사업 전략이 프리미엄에 맞춰져 있어 저가형 제품 출시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TV 소비 트렌드인 콘텐츠로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당장 국내 TV 업체는 이미 LCD가 아닌 QLED와 함께 OLED 등 고성능 패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나마 LCD 기반인 QLED 패널은 차이가 많이 줄었지만, OLED 패널은 아직은 품질이나 수율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TCL과 샤오미는 중저가 라인업에 한해 국내에 판매 중이다. 샤오미는 중형 TV만, TCL이 85형 QLED와 미니LED TV를 판매하고 있다. 국산 OLED 패널을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도 있지만 국내 판매 제품에서는 제외됐다.

같은 LCD TV를 비교해도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탓에 콘텐츠 차이도 크

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TV에 타이젠과 WebOS를 사용하며 각각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핵심 콘텐츠는 자체 채널인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삼성 TV 플러스와 LG채널이다.

그 중에서도 WebOS는 LG전자 뿐 아니라 글로벌 TV 브랜드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에 공급될 만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수량 기준으로 LG전자 판매량이 높지 않은데도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 TV 시장 WebOS 점유율은 12.2%에 달했다. 안드로이드(42.4%)와 삼성전자 타이젠(21%)에 이은 3위다.

중국 TV 공세가 오히려 침체됐던 TV 시장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저가형 TV가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결국 고품질 프리미엄 TV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LCD 패널 가격 하락과 재고 증가 등으로 중국 TV가 한국 시장에서 저가 전략을 펼치기 적절한 시기였을 것"이라며 "국내 TV 브랜드가 프리미엄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데다가 상품성으로도 차이가 큰 만큼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이통3사, UAM 시장 선점경쟁 치열... AI 활용해 생태계 확장

(도심교통항공)

SKT UAM 기체 도입, 상공망 구축 KT AI 활용 안전운항 돕는 기술 선배 LGU+ 상공망 품질 측정 솔루션 개발

국내 통신3사가(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하늘택시'로 불리는 도심교통항공(UAM)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발동신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 AI(인공지능)를 UAM에 접목해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포석이다. 글로벌 UAM 시장은 2025년 14조원에서 2040년 82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7일 국토부의 K-UAM 로드맵에 따르면 UAM 글로벌 시장 규모는 초기 사용화 시점인 2025년 109억달러(약 14조8000억원)에서 2030년 615억달러(약 83조5000억원)로 성장하며, 2040년 6090억달러(약 826조 5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LGU+가 개발한 상공망 품질 측정 통합 솔루션을 UAM에 사용하는 모습. /LGU+

먼저 SK텔레콤(SKTEL)은 UAM을 AI 컴퍼니 비전과 연계해 모빌리티 분야의 AI 전환(AIX)을 이루는 매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지상 교통과 연계한 무인 자율비행 등을 가능하게 하려면 AI 기반으로 UAM 생태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T는 419만㎡(127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화성국제테마파크에서 UAM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지난 2일 SKT와 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티맵 모빌리티가 참여 중인 'K-UAM 드림팀(드림팀)'은 신세계프라퍼티와 화성국제테마파크 UAM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KT는 AI 역량을 활용해 UAM 서

비스 전반을 운영하고 UAM 기체 도입과 상공망 구축을 맡는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안에 UAM 이착륙에 필요한 버티포트(정거장)를 건설하고 교통 서비스 제공하는 데 일조한다.

KT는 AI를 활용해 UAM 안전 운항을 돕는 기술을 내놨다. KT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UAM 비행 시연' 행사에서 지능형 UAM 교통관리 시스템 '스카이아이즈'를 처음 공개했다. 스카이아이즈는 UAM의 운항 안전과 스케줄 관리를 돕는 AI 교통관리 시스템이다. 운항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의 운항 스케줄을 제시한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비행 상황도 파악해 알려준다.

또 KT는 지난달 UAM 전용 5G 상공망 커버리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특화 안테나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KT는 현장 검증으로 도심항공 교통 비행경로인 고도 300~600m, 폭 100m의 회랑에 특화된 안테나의 빔 패

턴 및 성능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UAM 사업 준비를 위해 상공망 품질 측정 통합 솔루션을 개발했다. LG유플러스는 통신 시험 장비, 계측장비 제조사인 이노와이어리스와 상공망 품질 측정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최근 인천지역에서 관련 기능 검증을 완료했다.

최근 UAM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상 뿐 아니라 상공을 포함하는 비저상망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공 통신망 품질 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상공에서는 드론과 같은 무인 비행체를 통해 품질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날씨, 측정시간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상공망 측정을 통해 발굴한 개선 필요사항을 기반으로 이노와이어리스와 함께 상공망 측정 전용 장치와 상공망 분석에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전체 판매량 늘고, 증가폭만 줄어... "지속성장 가능성 높아"

>> 1면 '현대차·기아 공격 투자'서 계속

현대차, 친환경 평가 10년내 성장 전망 "에너지규제 맞춰 자동차 전동화 돼야"

반면 지난해까지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투자 조정에 나서서 등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GM은 최근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 추세를 반영해 작년 중반부터 내년 중반까지 2년간 전기차 40만대를 생산한다는 애초 계획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일본 혼다와 2027년부터 보급형 저가 전기차를 만든다는 계획도 백지화했다. 미시간주에 건설하기로 한 전기차 공장 가동 시점도 1년 미루

기로 했다.

포드는 예상치를 밑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서 계획했던 전기차 투자액 중 120억달러(약 16조2600억원)를 축소하고 SK온과 합작해 건설 예정인 쉐넬리 2공장 가동도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은 초기와 달리 전체 판매량을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줄었을 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진행중인 친환경차의 연구 개발에 대한 평가는 10년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전기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전차가 판매량은 802만대에서 2025년 2551만대, 2030년 611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우명호 세계전기자동차협회 회장(고려대 석좌교수)은 "글로벌 환경 에너지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이 필요한 만큼 자동차는 전동화가 되어야 한다"며 "미래 모빌리티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UAM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기를 활용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 등의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처럼 자동차도 우리 기업들이 이끌 것"이라며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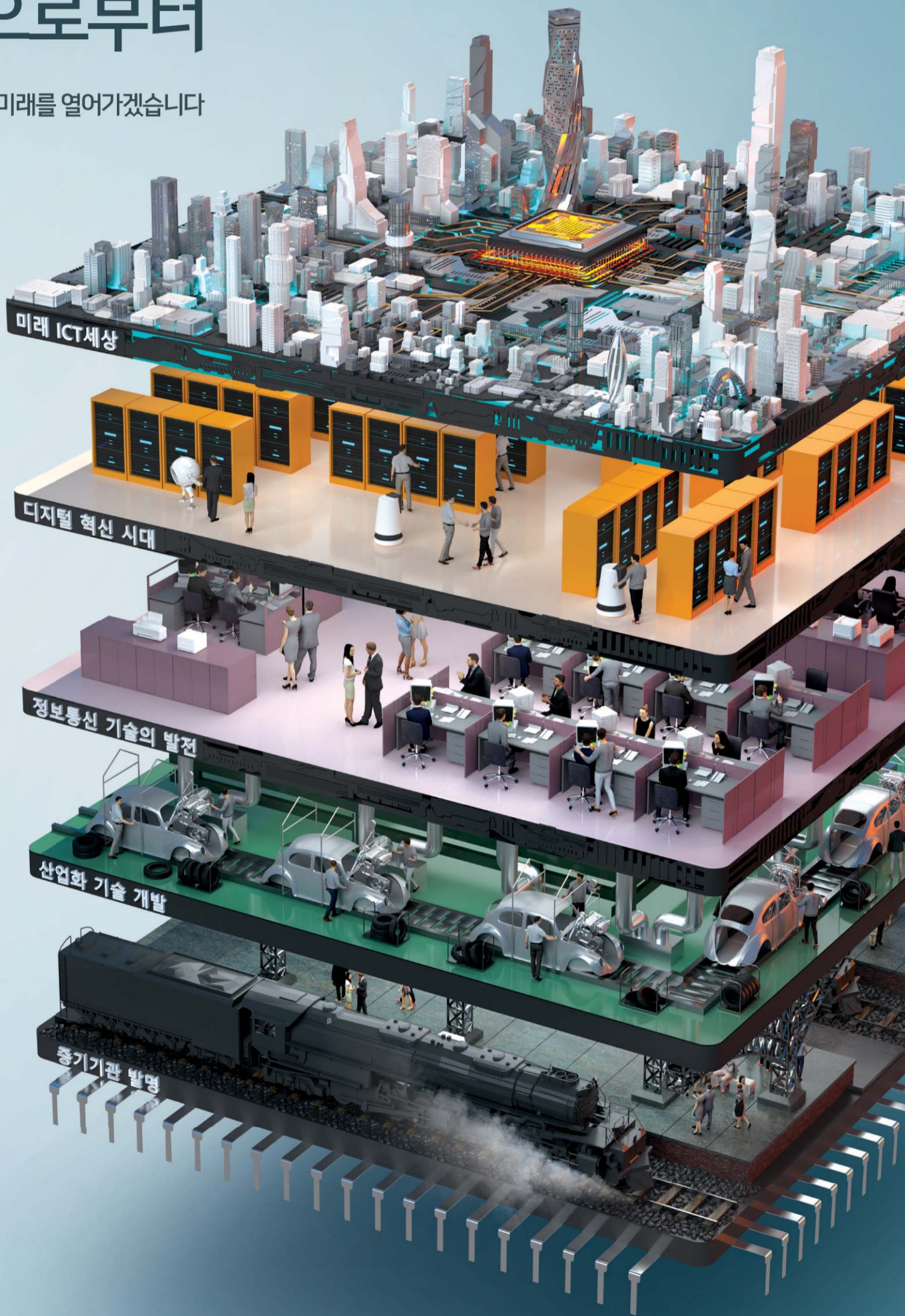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문명의 진보는 기술의 혁신으로부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美,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간첩 색출” vs “모욕적 발언”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감

野 “대통령실, NSC 유출 전면 부인 휴민트 정보, 교감청 통한 것으로 둔갑”
조태용 “불송치 결정서, 영문 모르는 말”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때 아닌 ‘간첩’ 논란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기관 증인과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미국 CIA(미 중앙정보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사를 했냐고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조 실장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도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기밀 유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통령실을 도청했다고 해서 주한미군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을 고발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불송치 결정서가 나왔다”면서 불송치 결정서에서 명시된 대통령실 입장을 읽어내려갔다. 구체적으로 결정서는 ‘대통령실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씨긴트(SIGINT·최첨단 장비를 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용해 신호를 포착하는 정보 수집활동)가 아니라 휴민트(HUMINT·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얻은 정보)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교감청을 통해서 획득한 것으로 둔갑됐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명시해 놨다.

이에 김 의원은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누설이 됐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조 실장은 “(대통령실이) 경찰

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것이 없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흘러)갔다는 것은 간첩(행위)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간첩이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은 이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조 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맞섰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다음 질의 순서였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 실장에게 “(김 의원이) 방금 간첩이라고 했는데, 모욕적인 발언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모욕이 될 것이고,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모욕)”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불송치 결정서에 있는 한마디에 의해서 그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여기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에 간첩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경찰에서 어떻게 (불송치 결정서) 작성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안보실에서 경찰에 어떤 문의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말은 안보실로서는 영문을 모르겠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 의원이 검찰 불송치 결정서의 한 줄을 갖고 제가 마치 대통령실을 편취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 단정”이라며 “경찰의 판단은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 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감청 의혹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고 있다. 경찰에선 여러가지 수사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野, ‘유병호 소환불응’ ‘이태원 참사 책임론’ 공방

예결위 비경제부처 내년 예산안 심사

野 “유 사무총장, 고의적 수사 지연”
김진욱 처장 “법 허용한 수단 사용”

野 “윤희근 경찰청장 책임지고 사퇴”
與 “과거 동이족... 문제 해결 안 돼”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불응, 이태원 참사 책임론 등을 두고 맞섰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등 33개 기관이 심사 대상으로, 심사는 8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였음에도 이날 회의의 주요 쟁점은 유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병호 사무총장과 이태원 참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지만, 네 차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 장에게 “유 총장이 다섯 번째도 불출석

하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임기 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

처는 ‘제2의 특별감찰관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른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달라”고 김 처장에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 정부 들어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자행하고, 하명 감사, 표적 감사를 하면서 극히 정치적으로 편중된 감사를 하고 있다”며 “유 총장은 국민이 기억하는 최초의 사무총장, 최 원장은 국민이 기억하지 못하는 최초의 감사원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를 거론하며 맞섰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서 못 간다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가”라며 “(정작) 국회에는 참석을 안 했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서로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그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쫓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청장은 “우선 지적해주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당시에 제가 일부분 그렇게 비춰던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용 국민의힘 의원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면 ‘동이족은 가뭄이 들면 왕을 죽인다’고 나와 있다”면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가. 여러 가지 참사와 관련해 사퇴나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게 과거 동이족 수준에서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이재명 중심 총선 모드... 非명 “본선 경쟁력 키워야”

김은경 혁신위, 하위 평가자 감산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 기각 후 당을 정비하고 이 대표 중심의 총선 체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비이재명계는 당내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은 채 총선을 치르면 ‘본선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측근인 조정식 당 사무총장이 ‘당헌 80조(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것과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등이 당의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

고 지적한다.

특히, 비이재명계는 새롭게 출범한 총선기획단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공천률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비이재명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선출직 평가 하위 대상자에 대한 경선 감산 강화로, 현행 당규에선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게 돼 있다.

김은경 혁신위는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선 시 40%를 감산하고,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 때

감산을 받는 하위 평가자의 범위가 늘었고,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산 비율도 강화됐다.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이런 식으로 지도부 인선도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구성하고 말로는 통합이라고 하면서 실제 결과는 전혀 통합과 반대 쪽으로 가는 것을 국민께서 다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본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그다음에 이 대표의 사당화를 불식시키고, 강성 지지층과 절연하고, 당 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책적 유능함을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尹대통령 “부정부패·가짜뉴스 추방하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며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지난 4월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후 7달 만에 다시 이곳 대구에 왔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

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 통합을 이뤄냈다”며 “정직한 개인, 함께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이 수해를 비롯해 산사태·산불 현장,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에 지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바르게살기운동의 눈부신 연대 정신은 국제사회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며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이 추진 중인 가짜뉴스 추방 운동을 격려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매각 실패에 IPO 철회까지 보험사 기업가치 제고 절실

하나금융, 'KDB생명 인수' 포기
MG손보도 유찰로 매각작업 중단
SGI서울보증, 흥행부진 IPO 철회
성장성 한계로 매력도 떨어져

보험사 매각 실패, 기업공개(IPO) 철회 등 보험업계에 우울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KDB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KDB생명보험의 인수를 포기했다. KDB생명보험의 새 주인 찾기는 이번이 5번째 실패다.

산업은행은 지난 7월 KDB생명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금융을 선정했다. 하나금융은 두 달 넘게 인수를 위한 실사 작업을 진행했지만 결국 인수를 중단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KDB생명보험 인수는 당 지주의 보험업 강화 전략 방향과 부합하지 않아 인수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KDB생명보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했던 MG손해보험의 예비 입찰도 유찰돼 매각작업이 중단됐다. 올해 1월에는 입찰에



SGI서울보증보험은 지난달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IPO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SGI서울보증보험

응한 기업이 한 곳도 나오지 않으면서 매각에 실패했다.

지난달 2차 매각 절차에서는 한 곳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으나 국가계약법상 복수의 원매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돼 결국 불발됐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지난달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IPO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친 후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희망공모가는 3만9500원~5만1800원으로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3

조6167억원으로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였다.

국가대표 배당주로 자리 잡겠다는 야망이 무색하게 수요예측 실시 5일 만에 상장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수요 흥행 부진 사유로 최근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을 꼽았다.

SGI서울보증보험은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 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향후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 전략 추진을 통해 손익 경영을 강화해 향후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업계의 잇따른 수난에 보험산업의 성장성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험산업이 신사업이 아닌 포화상태이므로 성장성이 크지 않아 더 이상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서 김석영 선임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은 다양한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시장 개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2010년대 중반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저축은행 금리 인하 수용률 45%

SBI저축은행, 감면액·신청건수 최다
수용률 가장 낮은 곳은 한투저축은행

저축은행 상위 10곳 가운데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상상인저축은행으로 나타났다. SBI저축은행은 이자감면액과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다. 반대로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었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주요 저축은행 10곳(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에큐온·다올·상상인·신한·모아저축은행)의 평균 금리인하 수용률은 45.38%였다. 10명 중 4~5명은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해당 저축은행 중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었다. 가계·기업대출 총 1169건 중 1168건(99.9%)을 수용했다. 상상인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금리인하 평균은 각각 연 0.25%포인트(p), 연 0.34%p다.

SBI저축은행은 접수건수와 이자감면액의 규모가 업계에서 가장 컸다. 접수 받은 1만4679건 중 8472건(57.72%)을 수용했다. 금리인하 평균은 연 0.77%p다. 총 17억3300만원의 이자를 줄였다. SBI저축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인 105억원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위 저축은행 10곳 중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었다. 총 1464건을 신청받아 184건(12.57%)을 수용했다. 이자감면액 또한 1억원으로 최저였다.

가계대출 부문 금리인하 요구는 ▲신용점수상향 ▲급여인상 ▲재산증가 등의 영향을 받는다.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다. 이어 기업대출 금리인하 수용은 ▲

회사채등급 상승 ▲추가담보제공 ▲거래실적 개선 ▲연체이력 해소 등을 고려해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상환능력이 커져야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점수는 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없이 사용하면 관리할 수 있다. 즉, 신용점수가 높아진 것을 두고 상환능력이 커졌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각 사별로 금리인하 요구 수용 기준은 모두 다르다. 불수용되더라도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시도하라는 조언이다.

저축은행권은 차주들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금 상황이 개선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하면 장기적으로 연체율 해소를 노릴 수 있어서다. 연체율이 해소되면 대손충당금을 줄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 요구권의 수용률을 두고 불멘소리가 나온다. 금리인하 수용률이 대출 기관을 판단하는 지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 문턱이 낮아진 만큼 신용에 변동이 없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수용률을 낮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산금리를 낮게 책정한 금융사의 경우 금리인하 수용 여력이 떨어진다.

대출에 앞서 최초 적용 금리 등을 함께 고려하라는 설명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은 주로 중저신용차주가 받는 만큼 최초 적용 금리,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 등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률이 합리적인 대출의 판단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공인중개사, 임대인 정보 등 설명의무 강화

국토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금 체납여부 등 설명해야

앞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 대책(2월2일)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5월22일)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

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의

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하도록 한 만큼 중개사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peace@

현대건설, 청정 수소생산기지 역량 확보

국내 첫 수전해 기반 설계 완료
내년 플랜트 건설, 2025년 생산

현대건설이 수소생산플랜트의 독자적인 설계역량을 확보, 수소사업 분야 선도 입지를 다졌다.

현대건설은 7일 전북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의 기본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운송할 수 있는 플랜트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국책사업을 통해 전라북도, 부안군,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수력원자력, 테크로스 위더앤에너지, 테크로스 환경서비스와 함께 전북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내에 해당 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로 상업용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2.5MW 용량의 수소를 하루 1톤 이상 생산하는 수전해설비와 250bar로 압축해 반출하는 출하설비로 구성된

다. 생산된 수소는 인근 수소충전소에 공급돼 수소 모빌리티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상세설계 및 안전관리 계획을 비롯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4년 플랜트를 건설해 2025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가 미래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원천기술 개발은 물론 자체 설계역량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글로벌 수소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규성 기자



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이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황병우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대구은행장 '노 엑시트' 캠페인 참여

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은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사공경렬 하이자산운용대표의 지명을 받아 본 캠페인에 참여한 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이미지를 DGB대구은행 공식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며 인식 제고에 나섰다. 이어 황 은행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권준희 하이투자파트너스 대표와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을 지목했다.

'NO EXIT' 캠페인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범국민적 예방 캠페인으로, 마약 범죄 급증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은 앞선 참가자들에게 지명된 참가자들이 #NO EXIT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필수 해시태그(#NOEXIT캠페인 #마약_출구없는미로)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고,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더 뉴 카니발’ 공개… 하이브리드 모델 등 상품성 대폭 개선

기아 미디어데이

부분변경… 패밀리카 정체성 강화
가솔린·디젤·하이브리드 3종 구성
‘하이리무진’ 사전계약 동시 진행

기아가 ‘RV 절대강자’ 카니발의 부분변경 모델을 공개했다.

기아는 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KIA360에서 ‘더 뉴 카니발’을 공개,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4세대 출시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카니발은 하이브리드 모델 추가와 함께 상품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에 공개된 ‘더 뉴 카니발’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 신규 디자인을 적용했다. 정제된 세련미와 SUV의 강인함을 조화한 외장 디자인, 간결한 조형을 곳곳에 적용하고 라이팅으로 입체감을 살린 실내 디자인 등을 구현했다. 전면부는 ‘스타랩 시그니처 라이팅’ 주간 주행등(DRL)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측면부는 수직 형상의 전·후면 램프를 직선의 캐릭터 라인을 따라 조화롭게 이어 균형감을 갖췄다.



7일 서울 강남구 기아 360에서 열린 ‘기아 더 뉴 카니발 미디어데이’에서 4세대 상품성 개선 모델이 공개되고 있다.

후면부는 깔끔한 이미지의 테일게이트를 구현했다. 전면부와 통일감을 주는 스타랩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적용하는 동시에 번호판 위치를 아래로 내리고 노출형 핸들을 히든 타입으로 변경하면서다.

실내엔 12.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매끄럽게 연결된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버튼 구성을 최적화한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환 조작계를 적용하고 엠비언트 라이트를 크래쉬패드까지 확대 적용

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했다. 중대형급 RV 시장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고객 수요에 맞춰 1.6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도입했다. 쇼크업소버 개선과 흡차음재 보강 등으로 승차감과 정숙성을 더 확보해 패밀리카 정체성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적용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2)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UV-C 살균 암레스트 수납함 등 편의사양도



/손진영 기자 son@

추가했다. 기아는 카니발에 고급스러운 품격을 더한 하이리무진의 사전 계약도 동시에 진행한다. 하이리무진은 프리미엄 리무진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하게 드러내는 디자인, 차별화된 실내 공간 및 고급 사양이 주요 특징이다. 하이리무진은 7인승 및 9인승에 하이리무진 전용 4인승 모델까지 더한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된다.

11인승 모델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기아 관계자는 “카니발이 패밀리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7, 9인승 모델 선

호도가 높아졌다”며 “11인승 판매량은 5%에 불과해 라인업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면서 공간 확보를 위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 뉴 카니발은 신규 색상인 아이보리 실버를 포함해 ▲스노우 화이트 펄 ▲아스트라 블루 ▲오로라 블랙 펄 ▲판테라 메탈 ▲세라믹 실버 등 6종의 외장 색상과 신규 색상 ▲토프 ▲네이비 그레이 ▲코튼 베이지 등 3종의 내장 색상을 운영한다.

가격은 모델별로 ▲3.5 가솔린 3470만원(9인승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부터 ▲2.2디젤 3665만원부터 ▲1.6터보 하이브리드 3925만원부터다. 연비(9인승 18인치 타이어 기준)는 ▲3.5 가솔린 9.0km/L ▲2.2 디젤 13.1km/L ▲1.6터보 하이브리드 14km/L(기아 연구소 측정 기준)이다.

기아 관계자는 “더 뉴 카니발은 고객이 선호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하고 웅장한 디자인과 신규 첨단 및 편의 사양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며 “대표 대형 RV로서 모든 가족 및 법인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프리미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에코프로, 영업이익 69% ↓… “광물가격 하락 영향”

3분기 실적발표회

매출 1.9조, 영업이익 650억 공시
향후 전략 ‘통합 리사이클 공정’ 꼽아



에코프로비엠 청주 오창 본사 /에코프로

에코프로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매출액은 다소 증가했지만 광물가격 하락이 수익에 악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7일 에코프로는 올해 3분기 매출 1조 9038억원, 영업이익 65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6.7% 증가, 69.3% 감소한 수치다. 에코프로가 기록한 올해 분기 누적 매출액은 5조 9854억원, 영업이익은 4176억원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광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며 “4분기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원가절감 등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강도높게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전자재료 사업의 제품 판매량은 확대 기조를 유지했지만 광물가격이 하락하며 영업이익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실제로 메탈가 변동성이 커

저 스프레드 마진이 축소되고 원재료 재고가 늘면서 재고자산평가손실 340억원이 발생, 결과적이 수익성 하락에 영향을 줬다.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보면 에코프로비엠의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판매량은 전 분기 대비 15.4% 증가했지만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서 매출액은 오히려 줄었다.

핵심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도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재료 매입가 대비 제품 판매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역래깅(원재료 투입 시차효과)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에코프로비엠은 3분기 매출 1조 8033억원, 영업이익 459억원을 올렸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

비 15.4%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7.6% 감소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량은 증가했지만 광물 가격 하락,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 등으로 수익성 부진을 겪게 됐다.

부진의 이유는 원재료 가격과 마진의 연동 때문이다. 양극재 기업은 고객사와 계약 시 광물 가격과 판가가 연동되는 방식으로 납품을 체결한다. 결국 리튬과 같은 주요 광물 가격이 떨어지면 비싸게 사들인 광물로 만든 제품을 저렴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 수익성에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다.

에코프로 측은 3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이번 3분기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심의 영업활동 강화를 통해 분기 매출액 성장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매출 구성비(매출 Mix) 변화로 분기 수익성은 소폭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에코프로는 향후 사업 중점 전략으로 ‘통합 리사이클 공정 개발’을 꼽았다. 이를 위해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등의 지주사로써 역할을 강화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화를 통해 기반 전환에 필요한 공동 책임을 약속 받고, 엔진과 각종 부품 공급 등 필수불가결한 다양한 지원을 받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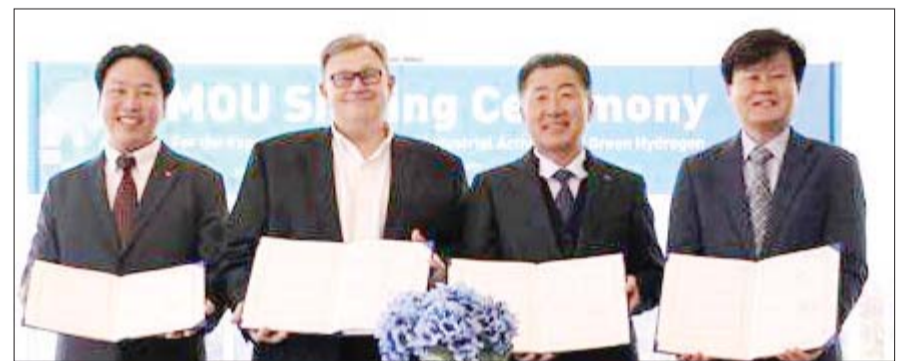
기존 운용리스 방식이었던 항공기 운용방식을 직접 구매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제주항공, 40번째 항공기 ‘B737-8’ 도입

보잉 직접구매… 원가 경쟁력 강화

제주항공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직접 구매한 차세대 항공기 B737-8의 첫 도입을 완료했다.

제주항공은 올해 계획한 2대의 차세대 항공기 가운데 첫번째 구매 항공기이자 40번째 항공기 도입이라고 7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번 차세대 기종 전환을 계기로 보잉사와의 파트너십 강



미국 뉴욕주 플러그파워 비스타(Vista) 공장에서 열린 ‘그린수소 확대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예섭 SK E&S 수소글로벌그룹 팀장, 키스 슈미드 플러그파워 부사장,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 이황균 SK 플러그 하이버스 대표이사 /SK E&S

SK E&S, 수전해 설비 국산화 추진

플러그파워, 수자원공사 등 협력

SK E&S와 플러그파워(Plug Power)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함께 국내의 그린수소 사업 확장과 수전해 설비 국산화를 위해 협력한다.

SK E&S는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올버니 카운티에 위치한 플러그파워 비스타(Vista) 공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플러그파워, SK 플러그 하이버스(SK Plug Hyverse)와 ‘그린수소 확대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4사는 각사의 보유 역량을 활용해 다가올 그린수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그린수소 생산설비 구축과 운영 기술 확보, 국내 및 해외 그린수소 사업 확대와 신사업 발굴 등 국내 그린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해 협력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SK E&S와 플러그파워의 합작법인 SK 플러그 하이버스는 국내외 그린수소 프로젝트에 고분자전해질

(PEM) 수전해 설비를 공급하고, 유지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그린수소 생산시설 운영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미래 추가 사업 협력과 해외 시장 공동 진출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 당사자들은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 기술인 PEM 수전해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SK 플러그 하이버스는 국내에서 PEM 수전해 설비를 생산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산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적, 기술적 지원과 함께 물 산업 분야 국내 그린수소 기업 육성에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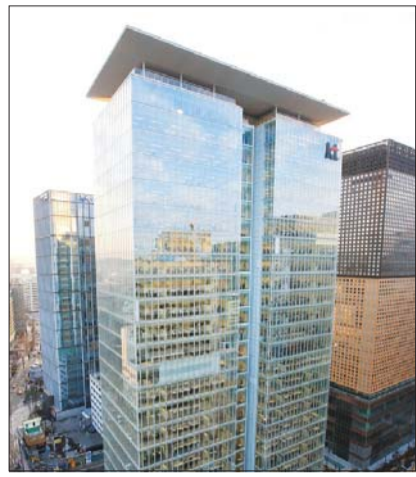
수전해 설비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확산을 위한 핵심 설비다.

이지영 SK E&S 수소글로벌그룹장은 “PEM 수전해 기술 국산화 협력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은 물론 국내 청정 에너지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협력 기회를 검토해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부진했지만 성장한 3분기

KT, 역대최대 매출에도 임단협 등 비용에 영업이익 29% 뚝

인건비·콘텐츠 공급 비용 영향
4분기 집행되던 비용, 3분기 지출
매출 3.4%↑... 역대최대 분기실적



KT 사옥. /KT

KT의 3분기 영업이익이 단체협상(임단협) 타결에 따른 일회성 비용과 콘텐츠 공급 비용 평활화 영향으로 급감했다. 다만, 상장 이후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하며 매분기 성장세를 이어갔다.

KT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2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감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4% 증가한 6조6974억원이다. 매출액은 KT가 지난 1998년 상장한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이다.

영업이익 감소 이유는 임금·단체협상(임단협) 3분기 조기 타결과 콘텐츠 소싱 비용 평활화 영향 때문이다. KT가 보통 임금 협상·콘텐츠 소싱 비용을 매 4분기 반영해 온 점을 고려하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김영진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7일 진행된 2023년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임단협 결과와 콘텐츠 소싱 비용 평활화 이슈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19% 성장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임금 협상이 조기 타결되면서 3분기에 (비용이)반영됐다"며 "이 비용이 1400억원, 콘텐츠 소싱 비용에 500억원이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하반기 예정된 비용스

케줄을 분기 단위로 조정할 것"이라며 "연간 영업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무선 사업 951만명 돌파

KT의 유·무선 사업은 고른 성장 나타내며 매출을 끌어올렸다. 회사의 무선 사업은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가 전체 핸드셋 가입자 중 70%인 951만명을 돌파하고, 국내외 여행객 증가에 따른 로밍사업 매출 확대, 알뜰폰사업의 견조한 성장세로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했다.

유선 사업은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가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했다. 이 중 인터넷 사업은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가입자 중 기가인터넷 비중이 68%로 확대되며 매출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KT는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부합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CFO는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4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비용이 선 반영된 부분이 있어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간 영업이익

도 작년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T·AI로 그룹사 혁신 도모...LGU+ 격차는 IoT만 적용

KT는 IT역량과 AI로 그룹사 혁신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진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사업의 근간인 IT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B2B 사업에서의 질적 성장을, B2C 사업에서는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만들고, AI 기반으로 KT와 그룹사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게 김영진 대표 큰 경영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B2B 분야에서는 IT 역량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매출과 이익 간의 이계 동반 성장을 이루어나가고, B2C 분야에서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 발굴을 통해 캐시카우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 설명했다.

경쟁사 LG유플러스와 줄어드는 격차와 관련해 원재관계 분야에서만 이뤄지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효일 KT고객경험혁신본부장은

"최근 경쟁사의 회선 증가는 정부 통계 기준으로 휴먼 가입자가 아닌 원격 관제 분야에서만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IoT에서도 원격 관제를 제외한 차량 관제나 무선 결제 분야는 KT의 회선이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회사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각자 입장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IoT 원격 관제 분야에서 최저가입찰로 월 1000원도 훨씬 못미치는 요금을 받으면서 수백만 회선을 일시에 파내는 방식의 사업을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분기배당 도입도 언급했다. 김 CFO는 "주당 배당금을 최소 2022년도 수준으로 하고 주주환원 재원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매입 후 소각을 병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정기 주총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분기 배당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U+, 전력료 등 비용증가에 실적부진... 4분기 모바일로 수익 개선

3분기 영업이익 2543억, 11% 감소
매출액은 2.3% 늘어 3조5811억
4분기, 알뜰폰·로밍 매출 성장 기대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LGU+

LG유플러스가 올해 3분기 전력료 등 비용 증가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연간 영업이익으로는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4분기부터는 기업인프라 부분이 연간 미드 싱글 수준의 성장에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평균 2센터도 내년 상반기부터 수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력료 증가에 영업이익 11% 감소

LG유플러스는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543억원으로 10.8%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액은 2.3% 늘어난 3조5811억원이다. 단말매출을 제외하면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7일 2023년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3분기 매출 쪽에서는 모바일 서비스 수익(매출)이 3분기 누적으로 2.9% 성장하면서 경쟁사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스마트홈은 3%, 기업인프라는 3.5% 성장으로 당초 목표 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명희 CFO는 "영업비용 쪽에서도 전력료가 지난해 말부터 3차례 인상돼 전년 동기 대비 늘었으며, 지난해 5G 네트워크 품질 향상을 위해 추가 취득한 20MHz 주파수에 대한 무형자산상각비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한 2543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무선사업 부문에서는 6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가입 회선 증가를 보였고 해지율 안정화 기조가 지속되는 등 질적 성과가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스마트모빌리티, IDC 등 B2B 신사업이 포함된 기업인프라 부문과 인터넷, IPTV 등 스마트홈 부문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지속하며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력료 인상에 따른 기타비용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마케팅비용은 지난해 대비 2.0% 감소한 5532억원이다. 매출 대비 마케팅비

용 집행률은 20.6%를 기록, 전년 동기와 비교해 0.9%포인트(p) 개선됐다.

◆4분기 기업인프라 매출 기대

KT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기업인프라 매출 성장 등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평균 2센터도 내년 상반기부터 수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4분기 실적은 플래그십 단말 출시, MVNO와 로밍 매출 영향으로 3% 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인프라 부문 역시 4분기에는 매출 성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연간 미드 싱글 수준의 성장은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4분기는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알뜰폰 및 로밍 매출 성장과 4분기 계절적 영향으로 매출 성장할 기업 인프라

로 연간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 수준 이상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평균 2센터의 수익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미 12개 전산실 예약 완료 됐다는 설명이다.

임장혁 LG유플러스 신사업그룹장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평균 2센터는 고집적, 고사양 IDC 수요 증가로 이미 12개 전산실 예약이 완료됐다. 사전 예약된 고객과 계약 협의 중"이라며 "매출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도를 목표로 IDC 신규 부지를 몇 군데 알아보고 있다"며 "특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충전 서비스 볼트업 설치를 연내 5만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미공개 신작 구경하고, 체험까지 해보세요”

국내 최대게임 전시회 ‘지스타’ 코앞 게임사, 이벤트 공유 등 막바지 담금질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3’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스타2023에 참가하는 게임사들은 신작 공개와 부스 조감도,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막바지 담금질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9년만에 부스로 참가하는 엔씨소프트와 스마일게이트, 2년 연속 메인스폰서를 맡은 위메이드, 내년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드래곤플레이, 넷마블, 구글플레이, 크래프톤 등이 관람객을 맞는다.

7일 지스타 사무국에 따르면 지스타 2023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올해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다. 부스는 지난해보다 303개 늘어난 3250개의 부스(B2C관 2386부스, B2B관 864부스)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는 9년만에 지스타에 복귀한 엔씨소프트의 행보가 눈여겨볼 만하다. 엔씨는 신작게임 7개를 공개할 예정이다. 7개의 신작은 모두 장르가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슈팅 게임 ‘LL’ ▲난투형 액션 게임 ‘배틀 크러쉬’ ▲MM

ORPG ‘쓰론 앤 리버티(TL)’ 등이다. 이에 엔씨가 ‘탈 리니지’에 나섰다라는 평가다. 관람객들은 엔씨 부스에서 다양한 게임을 체험해 볼 수 있다.

2년 연속 지스타 메일 스폰서를 맡은 위메이드는 신작 2종을 공개한다. ▲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 ▲야구 모바일 게임 ‘판타스틱4 베이스볼’이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메이드엑스알이 개발한 MORPG다.

크래프톤은 지스타 부스의 주제를 ‘팬스 퍼스트(FANS FIRST)’로 정했다. 지스타를 찾는 팬들은 미공개 신작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네오핀,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국내최대 NFT마켓 팔라와 파트너십

네오핀은 국내 최대 대체불가토큰(NFT)마켓 팔라(Pala)와 글로벌 블록체인 공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팔라와 네오핀 지갑의 연동을 통한 상호 윈-윈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팔라는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와 영상인식 인공지능 전문기업 알체라가 합작해 설립한 조인트벤처다. 지난해 4월 누적거래액 300억원 돌파 이후 현재 국내 1위 NFT거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네오핀은 디파이(DeFi, 탈중앙 금융)를 기반으로 고객확인증제도와 자금세탁방지 등 씨파이의 장점을 더한 씨디파이 서비스를 다.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디파이 상품외 NFT 지갑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네오핀과 팔라가 연동될 경우, 네오핀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으로 팔라에서 NFT를 거래한 이후 안정성 높은 네오핀 지갑으로 NFT를 전송해 보관하는 등 네오핀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대폭 증대된다. /최빛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大-中企 상생모범 5건... 수·위탁거래조사 2년 면제 등 혜택

‘원원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

함께 성장하는 활동사례 중심 발굴 롯데케미칼·한국환경공단 등 선정 TV방송 홍보 등 다양한 혜택 주어

포스코와 그래핀스퀘어, 롯데케미칼과 로우리트콜렉티브, 한국환경공단과 포이엔, 한국중부발전과 제타크리젠, 신용보증기금과 아모센스의 동반성장 활동이 올해 처음으로 ‘원원 아너스’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원원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을 갖고 이들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에게 기념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원원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자사의 협력사에게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되는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사뿐만 아니라 비협력사도 협력해 ‘원팀(one team)’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새로운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기부가 선정한 우수사례다.

기업별 우수사례는 이렇다.

우선 포스코는 그래핀 소재·부품기술의 신사업화 및 포항 벤처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인 그래핀스퀘어 등과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2023년 1차 WIN-WIN HONORS〉

*자료 : 중소기업부

원원 아너스(우수사례)	우수사례 기업	대표 협력 중소기업
그래핀스퀘어(주) 글로벌 성장 지원 및 포항 그래핀밸리 구축	포스코	그래핀스퀘어
Project LOOP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롯데케미칼	로우리트콜렉티브
「食사이클링」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 동반성장 가치 실현	한국환경공단	포이엔
ESG 경영을 통한 로봇 제조 중소기업 전주기 지원	한국중부발전	제타크리젠
대·중소기업 ‘공동프로젝트 보증’ 지원 사업	신용보증기금	아모센스

포스코는 2021년도부터 회사, 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보유한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파일럿 테스트를 지원하는 ‘제조 인큐베이팅센터’를 구축하고 그래핀스퀘어 등의 파일럿 공장 구축 및 공동 연구개발(R&D), 미국 CES 참가 등을 지원했다.

그래핀스퀘어는 포스코와 협력을 통해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고 양산 시설 등을 구축했다. 또 ▲2023년 미국 CES 최고혁신상 수상 ▲미국 타임지 선정 올해의 발명품상 2회 연속(22·23년) 수상 등의 쾌거를 이뤘다.

이와 함께 삼성벤처투자, 에코프로파트너스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

롯데케미칼은 페플라스틱 자원화를

위해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 기업을 발굴해 R&D 및 사업화 지원금 지원, 협력기관과 연계 등을 하나의 고리로 연결하는 ‘LOOP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포함, 총 3회를 진행해 8개사에 5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했다.

플라스틱 제조 벤처기업인 로우리트콜렉티브는 2021년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태산 벤치’라는 이름의 리사이클 벤치 제품화에 성공했다. 롯데케미칼은 태산 벤치 10개를 서울 청계천에 설치했다. 태산 벤치는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2023’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스타벅스, 지역중소

기업,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食사이클링(食+Recycling) 카페’를 조성,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스타벅스가 의뢰한 커피찌꺼기 재활용 기술 검토를 지원한 결과 포이엔은 이를 활용한 테이블, 화분 등을 제작했다.

환경공단은 본사 내에 운영하는 ‘카페 지구별’을 통해 5년간 커피찌꺼기 1만1760kg, 재활용 및 이산화탄소 2만1056kg 감축, 청년 채용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로봇을 활용한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규 로봇 아이디어 발굴, R&D 및 홍보, 해외판로 등 로봇 제조 중소기업의 전주기를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산업용 로봇 제조 중소기업인 제타크리젠은 중부발전과 협업체 ‘무인 수중 로봇 준설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중부발전과 공동특허도 지난해 취득했다.

그 성과로 사업영역을 기존 선박청소업에서 발전정비업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4200만원에 그쳤던 매출이 1억2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극복과 미래혁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특화 제도인 ‘공동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미래차, 고부가가치 선박, 친환경 가전분야 등 여러 혁신분야에서 총 13개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121개 중소·중견 협력기업에 총 2138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자동차 전장 부품업체인 아모센스는 2021년 현대모비스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미래차 프로젝트’에 참여해 자금을 지원받은 후 같은해 코스닥 시장 상장 성공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와 같은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새로운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원원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기관에는 ▲TV 방송 홍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동반성장 관련 정부포상 우대 ▲기념패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기업계 “기업승계 등 국회통과 절실”

중소, 홍익표 원내대표와 간담회 중처법 유예·화평법 개선 등 논의

중소기업계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중소기업들에게 절실한 핵심 입법과제 4건을 건의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법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화평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정윤보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 권혁홍 한국제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고병현 한국어뮤즈먼트 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왼쪽 4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경만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에선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경만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은 ▲중여세 연부연납 기간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 ▲중여세 과세특례 세율 10%구간 확대(60억→300억원) ▲업종변경 제한 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을 담고 있다. /김승호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추가 연장은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이다.

아울러 화평법의 경우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기준 1톤(t)으로 조정’, 화관법은 ▲유해성·취급량 등에 따른 정기검사 및 검사 면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신고 및 면제 대상 규정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줄 것도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LX홀딩스, 노진서 대표 사장 승진

이사 2명 신규 선임도

LX홀딩스가 2024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7일 LX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노진서 대표이사 겸 부사장(사진)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구분준 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경영을 책임져 온 노 사장은 그룹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을 주도하고, 그룹 출범 초기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노 사장은 LG전자 전략담당(상무)을



거쳐(주)LG 기획팀장(전무),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전무), LG전자CSO부문부사장을 지냈으며 LX홀딩스 CSO(부사장)를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김국현 기획관리담당(책임)과 염민석 재무담당(책임)이 각각 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LX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엄정한 성과주의와 책임경영을 감안한 승진 인사로 내실 있는 성장 전략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테라스, 초대형 트리 선보여

올해로 6회째... 일루미네이션도 점등

시몬스가 경기이전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SIMMONS Terrace)’에 크리스마스트리와 일루미네이션을 선보인다.

7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시몬스 테라스의 크리스마스트리 및 일루미네이션 점등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시몬스가 이전의 시민이자 이웃으로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기획한 문화 나눔 행사다. 지난 2018년 시작해 올해로 6회째인 이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나면서 겨울 비수기에도 이전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테라스 잔디 정원을 가득 메운 웅장한 트리와 장식, 중정 공간을 뒤덮



시몬스가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에 초대형 트리 및 일루미네이션을 선보인다.

은 세련된 일루미네이션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하며 시몬스 테라스를 이전을 넘어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었다. 실제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이틀(12월24~25일)간 약 3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방문했다.

SNS상에서도 인증샷성지로 떠오르며 연말연시 반드시 가봐야 할 ‘크리스마스 핫플’로 자리매김했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평택에 카본보드 체험 매장

체험형 매장 열고 소비자 점점 넓혀

귀뚜라미가 카본보드 전문 체험형 매장을 열고 소비자 접점을 더욱 강화한다. 귀뚜라미는 카본보드 전문샵 1호점인 ‘귀뚜라미 경기 남부 대리점’을 개점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위치한 귀뚜라미 경기 남부 대리점은 500㎡(약 150평) 규모다. 카본보드의 실제 시공 모습을 확인하고 다양한 기능을 시연해 볼 수 있다.

평상에 시공한 바닥 난방, 찜질방 벽면 전체에 시공된 공간 난방, 카본보드

전용 블루투스 컨트롤러 등 매장 내부에 마련된 다양한 공간에서 난방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카본보드 DIY(Do it Yourself) 시공을 돕는 ‘DIY 설치 가이드’도 마련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DIY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과 설치 가이드 영상이 제공된다. 방수비닐, 단열재, 전원 케이블, 필름 보호판 등 추가 물품도 매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식당 종이컵, 금지 철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도 연장

환경부 “종이컵 규제하는 나라 없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짊어져”
종이빨대 대체품 품질 개선 노력
종료시점, 상황 고려해 추후 결정



환경부가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화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뉴시스

정부가 7일 상점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못하게 막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우리나라도 종이컵을 일회용품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은 유예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련 소상공인 부담 해소방안’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고, 규제에 앞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기존 정책의 일부 선회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다만 일부 국가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있었다”고 전했다. 환경부 설명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대부분이 규제를 결국엔 철회했다. 또 일부 국가는 하위법령 입법이 미비한 탓에 실제로 규제하는 데 실패했다.

이어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일회

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의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 언급했다.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소상공인 고충 토로 내용도 전했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완전 철화는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종이컵보다는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해 환경부는 “일부 사업자가 규정 준수를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계도기간 중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협약 등 국제동향 및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민간발전업계, 안정적 에너지공급 해달라”

강경성 산업2차관, 에너지업계와 소통

의회(11.1)를 만났다.

정부가 민간발전업계 대표들을 만나 올 겨울 차질없는 에너지공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발전사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문제가 없다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다짐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7일 주요 민간발전 및 열병합에너지 사업자와의 소통 간담회에서 “민간발전업계가 전기와 열 등 민생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올 겨울도 철저한 대비로 공급에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가 에너지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강 차관은 앞서 정유업계(8.17), 에너지산업 협단체(10.5), 가스업계(10.12), 에너지신산업계(10.24), 에너지 공기업 기술혁신 협

이날 간담회에는 SK E&S 추형욱 사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진혁 에너지부부장, 강릉에코파워 장용창 사장, 고성그린파워 김우용 사장, GS E&R 김석환 사장, 한화에너지 김영욱 부사장 등 발전업계 중 석탄, LNG, 열병합 등 주요 분야 기업 6개사가 참가했다.

민간 발전사들은 2022년 기준 우리 석탄발전량의 16.5%, LNG 발전량의 67.4%를 차지하는 등 국가 전체 전력수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석 기업들은 올 겨울철 안정적 전력공급이 중요한 가운데 차질 없는 연료수급과 설비관리로 국민 생활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요 LNG 발전사들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LNG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액상형 세탁세제, 1회 비용 최대 8.2배 차이

소비자원, 세탁세제 12개 시험·평가
다우니·커클랜드 세척력 가장 우수
1회 세탁 시, 겹업 40원·다우니 328원



한국소비자원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반 세탁기용 액상 세탁세제 품질 비교시험 결과, 세척력과 경제성에서 제품별 차이를 보였고 안전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은 표시가 부적합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액상형 세탁세제 1회 세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최대 8.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 성능은 다우니와 커클랜드 두 브랜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일반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겹업(에코트리)·노브랜드(이마트)·다우니(한국 피앤지판매유한회사)·리큐(애경산업)·비트(라이온코리아)·아토세이프(아토세이프)·액츠(피죤)·세제혁명(비엔디생활건강)·커클랜드(코스트코 코리아)·탐사(씨피엘비)·테크(엘지생활건강)·퍼실(헨켈홈케어코리아) 제품(제품명 가나다순)이다.

먼저, 3가지 오염에 대한 각각의 세척 성능 시험에서 다우니와 커클랜드 두 브랜드 제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물을 수 있는 기름, 흙 등 오염물에 대한 시험에서는 다우니·리큐·커클랜드 3개 제품, 쉽게 지워지지 않는 혈액, 잉크 등 오염물 세척 평가에선 다우니·커클랜드·퍼실 3개 제품, 인체에서 분비되는 피지 등 오염물 세척 시험에서는 다우니·리큐·커클랜드 3개 제품 세척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1회 세탁 비용은 최저 40원에서 최대 328원으로 제품 간 최대 8.2배 차이가 났다. 세탁물 3.5kg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세제량을 기준으로 1회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겹업 제품

이 4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노브랜드(53원), 탐사(65원), 액츠(89원), 아토세이프(96원), 리큐(103원), 비트(111원), 커클랜드(143원), 세제혁명(169원), 테크(175원), 퍼실(217원), 다우니(328원) 순이었다.

세탁 시 옷의 염료가 빠져 색이 열리는 변화를 방지하는 정도와,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오염을 방지하는 정도에 대한 시험에서는 시험대상 전 제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올 177건 발생

(1월~10월까지)

국표원-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7일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을 맞아, 매년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 안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전기매트·전기장판·전기요 등 전기매트류 화재사고는 2020년 242건, 2021년 179건, 2022년 242건 발생했고, 올해 1월~10월까지 177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시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해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韓-사우디, ‘中企·스타트업 협력 로드맵’ 논의

이영 장관-사우디 중소기업장 양자회담



이영 중소기업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미 빈 이브라힘 알후사이니(Sami bin Ibrahim Alhussaini) 사우디 중소기업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중기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양국 중소기업의 상호 진출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이 7일 서울에서 사우디의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사이니 중소기업청장과 ‘한-사우디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로드맵’ 수립 논의 등을 위한 양자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알후사이니 중기청장이 우리나라의 대표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3’에 참석차 방한하면서 성사됐다.

이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민방문을 계기로 개소한 리야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 등을 로드맵 의제로 제안했다. 사우디측은 2024년 사우디에서 개최되는 기업가정신 월드컵에 한국이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함에 따라 양 기관은 구체적 협력방안과 일정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장애인고용공-고려대, ESG·고용확대 맞손

고용서비스 제공해 ESG 실천 지원

공단 조항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고려대학교에 다양한 장애인 직무를 발굴하여 교육 분야에 모범사례를 만들고 지속적인 장애인 채용 노력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 경영 실천의 가치와 성과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7일 고려대와 ‘사회적 가치 구현 및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고려대 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과 긍정적 인식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단은 장애인의 적합 직무를 분석하여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모집 대행과 직업훈련 등 다각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고용을 통한 고려대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학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대학의 장애학생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대학에서의 장애 근로자 확대 및 적합 직무 개발 등 장애 친화적인 근로 환경 모델을 만들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미 선택한 검증된 학습법 링크

과목/ 수준 모두 “ 선택할 수 있는 진짜 **맞춤** 학습 ” 링크를 경험해 보세요

한글(국어), 수학, 영어 모두 시작하려는 아이도
영어만 지금 필요한 아이도 모두 OK!



지금 무료체험 신청시,
알파벳 + 수학 브로마이드 2종도 선물!



1위 학습 링크, 무료체험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우측의 QR 코드를 통해 링크 무료체험을 신청하세요!



'대서양 연어'를 경북도에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경북도·포항시, 해수부 공모 선정 사업비 400억... 테스트베드 조성 내년 시설 완공 시 연 1000톤 생산



연어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조감도. /경북도

경북도는 7일 포항시 장기면 금곡리에서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 경제부지사, 해양수산부, 경북도의회, 포항시장, 노르웨이 대사 참사관 및 관계사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사업은 2020년 경북도와 포항시가 해양수산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400억 원 중 테스트베드(2만8570㎡)를 조성(300억원)하는 사업이며, 내년에 준공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배후 부지(19만5570㎡)를 조성(100억원)할 계획이다.

국내 식당, 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어 대부분은 노르웨이가 원산지인 대서양 연어다. 세계 연어 생산량

480만 톤 중 양식 연어가 300만 톤을 차지하며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은 양식 연어(125만 톤)를 생산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낚치나 강도다리와 같은 전통적인 횡감을 선호하고 있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연어나 참치류의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연어 수입량은 10년 전 1만 5천 톤에서 지난해 7만 7000톤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경북도에서는 변화하는 수산물 소비패턴을 반영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어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민간법인(미래아쿠아팜 주식회사)을 공모 선정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연어 양식에서부터 가공·판매까지 많은 노하우를 보유한 노르웨이 닐스윌릭스사와 공동 추진하는 기술협력 협약을 이미 체결했다.

또, 최근 고령화와 어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순환 여과 시스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 표본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며 완공 후에는 수산양식 창업자나 한국 해양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술 전문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대서양 연어 1천 톤을 생산하게 되고 2027년부터 배후 부지에 순수 민간투자자금 2000억 원이 추가로 투자되어 시설이 완료되면, 2033년까지 국내 수입량의 14%인 1만 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소비자와 시장이 원하는 품종의 지속적인 발굴과 수입대체 어종의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경북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암군 전남도 등과 김치수출 확대 박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전남도, 해남군, 김치수출기업과 함께 '남도 김치 수출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수출되던 김치 완제품은 보관 불편, 익힘 정도 유지 어려움 등 유통상 단점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념과 배추를 따로 수출할 판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영암군은 전남도와 함께 협약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물류비용과 현지 마케팅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을 마중물 삼아 영암의 우수 농산물인 고구마·배·쌀 등의 수출 판로 개척에도 나서기로 했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신안군 돌미역,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신안군(군수 박우량)의 신안·진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됐다.

신안·진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신안군 흑산군도와 우이도, 진도군 조도군도에서 행해지는 전통어업이다. 맨손, 미역낚 등으로 채취하는 원시적 어업 방법으로 조간대에서 자생하는 돌미역을 공동으로 채취하고 분배하는 공동체 어업으로서, 특히 미역 서식처(미역밭) 관리를 위한 전통 어업기술인 '물주기'와 '갯다기'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경남도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경남도는 올해 공공비축미곡 중 '건조벼' 수매를 연말까지 진행, 정부양곡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의 적정 비축규모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40만t을 매입한다. 경남도는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에 따라 우리 지역에 배정된 공공비축미곡 7만 4474t을 연내에 신속히 매입할 계획이다. 이 중 '산물벼'(건조하지 않고 바로 출하하는 벼) 2만 6070t은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11월 30일까지 매입하고 있으며, '건조벼' 총 4만 8404t도 11~12월 동안 매입한다.

/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

함양군 산양삼 가공제품, 수출길 올라

경남 함양군이 지난 6일 홍콩에서 산양삼 가공제품 223만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3일간 현지 판촉 행사 및 홍보를 통해 함양 산양삼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렸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병영 군수를 단장으로 17명으로 구성된 홍콩 시장개척단을 파견, 함양 산양삼 가공제품을 소개하고 청정 함양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수출 협약식에 참여한 제품은 산삼순백, 호박팔차 등으로 전시와 시식을 통해 홍콩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비 116억... '전국 최다' 확보

농식품부, 논 타작물 재배단지 지원 교육컨설팅·장비·시설·다각화사업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벼 /전남도

전라남도는 쌀 적정생산 유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고품질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단지를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비 1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전체사업비 331억 원(국비 154억 원)의 3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다. 전남도 사업비 116억 가운데 국비는 55억 원이다.

전남도의 세부 사업은 교육컨설팅 지원 62개소 18억 원, 시설·장비 지원 13개소에 63억 원, 선별·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다각화사업 1개소 35억 원이다.

교육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영체는 개소당 3천만 원(보조 90%), 시설·장비는 콩 등 논 타작물 재배 기반 조성에 필요한 트랙터, 범용콤바인, 파종기 등 구입비를 개소당

최대 5억 원(보조 90%)을 투입한다.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다각화 사업자로 선정된 '화순 천운농협(조합장 김준호)'에는 35억 원(보조 80%)을 투입해 콩 전용 종합처리장 및 저온저장시설을 구축한다.

전남도의 전국 최다 사업비 확보는 농식품부 평가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사전 발표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컨설팅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농식품부가 중점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평가 가점을 받도록 한 것도 한몫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영양군,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 받아

투자계획 평가 'A등급'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아 112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영양군은 '자연을 담고, 청년을 품는, 행복한 고장 영양'을 비전으로 군의 강점인 청정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공교육 및 청년 역량 강화, 출생인 중심 귀촌 유도 및 청년 유출방지 등을 목표로 하는 9개 사업을 발굴해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시설 기반 확충을 통한 정주인구 유입, 청년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 등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소멸대응기금 112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생활인구 확보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2023 GUMI TRADE DELEGATION Thailand Bangkok Oct. 26th, 2023. 구미시는 중소기업 아세안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지난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방콕)에 무역사절단 10개기업을 파견했다. /구미시

구미시, 中 中企 아세안시장 판로개척 성과

123건 수출상담·11건 업무협약

경북 구미시의 중소기업 아세안시장 판로개척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구미시는 중소기업 아세안시장 판로개척 지원에 나서 총 123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1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방콕)에 무역사절단 10개 기업을 파견했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자카르타에서 71건, 방콕에서 52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혼합(하이브리드)방식으로도 입해 원거리의 현지 구매자(바이어)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31건의 상담을 추진하는 등 현지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아세안 시장에서 시장 규모 1, 2위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다수의 기업체가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수출 관련 법령·회계·세제 체계가 달라 중소기업의 개별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제품의 시장성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 11개사를 선정, 사절단을 구성(온라인 1개 사)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지 맞춤형 전략추진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구매자를 매칭하고 1:1 상담회를 추진했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경주시, 폐철도로 주민편의시설 만든다

임시보행로·주차장 설치

경주시가 철도로 인해 단절된 구간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폐철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주시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 경주도심을 관통하던 동해남부선·중앙선 80.3km와 철도역 17곳이 폐선·폐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폐철을 활용한 임시보행로·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본격 나섰다.

현재까지 사업비 4억 3700만원이

투입되면서 ▲황성제1·2지하차도 등 임시보행로 8곳 ▲황성성당 옆 주차장 등 임시 주차장 2곳 ▲외동읍 모화리 정비 등 환경정비 1곳 등 폐철 구간 내 주민편의시설 11곳이 조성됐다.

임시보행로 8곳 모두 이동편의를 위해 데크설치, 식생매트, 폐쇄포장 등이 설치됐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메시휀스도 함께 설치됐다. 이 밖에도 황성동 315-2번지 일원에는 임시보행로 조성 외 824㎡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설치된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가격인상 효과?... 식품업계 대부분 3분기 실적 ‘好好’

동원 영업익 1544억 19.6% 상승
추석 선물마케팅 효과 F&B 주도
롯데웰푸드 영업익 806억 40.9% ↑
농심·삼양식품·오뚜기 모두 호실적

CJ제일제당 가공식품 등 부진에
매출 3.63%, 영업익 19% 하락
해외사업에선 영업익 25% 증가



켈리 생산 라인.



/하이트진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매대의 모습.

/뉴시스

올해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에 대체적으로 호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사업 호조와 함께 원가 부담에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덕분이다. 증권사 컨센서스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을 제외한 기업들은 올해 3분기 지난해 동기 대비 높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수익성 개선세에 웃음

동원그룹 지주사인 동원산업은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 3843억원, 영업이익 154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보다 3.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9.6% 늘었다. 이번 3분기 실적 성장은 식품 사업 계열사인 동원F&B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원F&B는 추석 명절 선물 세트 특수와 마케팅 비용 호

울화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 부문이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동원푸드 등 자회사도 성장에 힘을 보탰다.

롯데웰푸드도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했다고 공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865억원으로 1.5% 감소했지만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당기순이익도 713억원으로 101.5%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 5.2%에서 올해 3분기 7.4%로 개선됐다. 합병 시너지와 함께 글로벌 사업 부문 성장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도 상승세가 관측됐다. 농심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8784억원, 490억원으로 각각 8%, 79.5% 증가할 것으로 추

정됐다. 농심은 지난해 추석 직후 라면과 스낵 주요 제품의 출고가격을 각각 평균 11.3%, 5.7% 인상했다.

‘불닭볶음면’의 해외 인기를 앞세운 삼양식품의 경우 3분기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836억원, 355억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34.09%, 영업이익은 83.94% 증가했다. 오뚜기는 매출 9080억원, 697억원으로 각각 10.5%, 57.5% 증가할 전망이다.

◆수요 부진·원가 부담에 발목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은 매출은 7조 7209억원, 영업이익은 3928억원으로 각각 3.63%,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가공식품 매출 부진과 바이오 부문의 수요 부진에 더해 원가 부담까지 겹쳐 수익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바이오 부문은 아미노산 시황 부진과 원당 투입 단가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해외 사업의 경우 CJ제일제당이 2019년 인수한 미국 냉동식품 기업 슈완스의 점유율 상승과 주력 제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류업계도 저조한 실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하이트진로의 3분기 매출은 6600억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는 반면 영업이익은 300억원으로 반토막이 될 것이란 게 증권가 전망이다. 심은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총수요도 부진하지만 주정 등 주요 원재료 투입 가격 인상이 부

담”이라고 말했다.

◆호실적 마냥 웃을 수 없어

업계 관계자들은 호실적이 정부의 가격 인상 압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지난 10월 말 정부는 16개 식품회사 수장을 불러들여 가격 인상 자체를 요청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간담회로 정부의 당부에도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는 TF를 구성해 라면, 빵, 우유, 과자, 커피, 설탕, 아이스크림 등 7개 주요 품목 가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별 품목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원부자재비와 물류비, 제조 전반 경비 등 가격 인상 요인이 다분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제품 가격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결정권을 맡겨야 한다”며 “당장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오히려 나중에 가격을 더 올리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쿠팡, 1년간 사전판매 서비스 모두 ‘완판’

‘쿠팡신공’ 소비자-브랜드 ‘윈윈’
KFC·농심 등 18개 브랜드 참여

쿠팡이 선보인 신개념 서비스가 소비자들과 브랜드 모두를 만족시키는 ‘윈윈’ 서비스로 탄탄하게 자리매김했다.

푸드테크 기업 쿠팡은 신상품 사전판매 서비스 ‘쿠팡신공(쿠팡신상공개)’이 지난 1년간 진행된 모든 판매 회차에서 완판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신공은 쿠팡이 ‘우주에서 가장 빠르게 먹거리 신상품을 소개한다’를 모토로 지난해 12월 론칭한 서비스다. ‘얼리어택터(얼리어답터+먹다)’ 성향의 요즘 소비자를 겨냥해 라면, 과자, 치킨, 떡볶이, 음료, 빵 등 정식 출시를 앞둔 다채로운 먹거리 신상품을 현물 및 모바일 메뉴 교환권(식사권) 형태로 오직 쿠팡에서만 선착순 할인 판매한다.

론칭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 동

안 KFC, 농심, 이디야커피, 다운타운너 등 18개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총 22차례 진행됐다. 이 중 농심, 이디야커피를 포함한 5개 브랜드는 1차례 참여 후 쿠팡신공의 뛰어난 마케팅 효과를 체감하고 신상품 론칭 시 후속 판매 회차에 추가로 참여했다.

진행된 22차례의 판매 회차는 모두 완판을 달성했다. 이 중 약 82%에 해당하는 18차례는 당일 완판을 기록했으며, 판매 시작 1시간 이내에 완판된 회차도 12차례로 절반 이상이였다. 지난 달 19일 진행된 22회차 판매의 경우, 단 3분 만에 호식이두마리치킨 신메뉴 세트 교환권이 품절되며 최단 시간 완판 기록을 수립하는 등 폭발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냈다.

단시간 완판의 원동력으로는 가격적인 할인율과 더불어 쿠팡만의 차별화된 기획력 및 SNS 영향력을 활용한 입체적인 콘텐츠 마케팅이 꼽힌다. 쿠팡

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신상품 관련 콘텐츠가 국내 최고의 팔로워 기반을 갖춘 쿠팡 SNS 채널에 동시 노출된다는 점에서 구매 유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0개 가량의 신상품 관련 콘텐츠가 업로드 후 단 일주일 동안 도합 2000만 건에 육박하는 노출수를 기록하며 소비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한, 판매 종료 후에도 업로드가 유지되며 지속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신공을 통해 소비자는 새로운 먹거리를 누구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만나고, 브랜드는 정식 출시 전에도 제품 홍보와 시장 반응 파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며, “연남동 카페처럼 가장 핫한 지역 맛집도 쿠팡신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참여 브랜드의 카테고리별 적극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현대백화점세점 ‘5주년 기념 오! 페스타’ 개최

현대백화점세점이 창사 5주년을 기념하며 대규모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세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5주년 기념 오! 페스타(5th Anniversary Oh! Festa)’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무엇보다 현대백화점세점은 서울 더현대 5층 사운즈 포레스트에 위치한 ‘H 빌리지’에서 창사 5주년 기념 팝업 공간을 운영한다. ‘H 빌리지’ 내 팝업 공간에 뉴진스가 출연한 현대백화점 세점TV 광고를 재현한 포토존을 설치했다.

현대백화점세점 인터넷세점에서는 5주년 기념으로 럭셔리, 패션, 화장품, 향수 등 다양한 품목을 최대 80% 할인한다.



지난 6일에 서울 더현대 ‘H 빌리지’ 내 팝업 현장에 현대백화점세점 광고모델 뉴진스가 방문했다.
/현대백화점세점

아울러 현대백화점세점 무역센터점, 동대문점, 인천공항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세점에서 200달러 이상 구매한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555명을 추첨해 총 2000만원 상당의 경품도 증정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1년 준비한 ‘쓱데이’ 온다... 20개 품목 공개

신세계그룹, 오는 13일 개최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진행하는 쇼핑 축제 ‘2023 쓱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쓱데이를 맞아 내놓는 콜라보 아이템이 대거 공개되면서 “역시 쓱데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사전 이벤트 ‘쓱데이 어워즈’를 통해 개봉된 쓱데이 대표 상품은 삼성전자, LG전자, CJ제일제당, 유한

김벌리 등이다.

7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쓱데이 어워즈는 쓱데이만을 위해 1년여 간 준비한 40개 품목을 소개하는 행사로 1일 SSG닷컴 이벤트 페이지 내 20개 품목이 1차 공개됐다.

고객들이 가장 기대하는 상품에 투표하면 ‘적립금 스크래치’, ‘택키드로우’ 응모권을 제공해 쓱데이 행사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SSG머니와 경품을 제

공하는 고객 참여형 이벤트로 진행 중이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쓱데이 어워즈 이벤트에는 25만명 넘는 고객이 참여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쓱데이가 대한민국 대표 쇼핑축제 자리잡은 만큼 국가대표 제조사들과 MZ세대가 열광하는 핫한 브랜드도 대거 동참했다”며 “사전 이벤트 참여로 SSG머니와 경품에 응모해 13일부터 진행되는 쓱데이를 더욱 풍성하게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CJ제일제당 ‘백설 육수에는 1분링’ 출시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간편조리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편의형 조미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백설 육수에는 1분링’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멸치디포리 육수, 사골 육수 2종으로 구성된 원하는 요리에 맞춰 한 알만 넣으면 진한 육수를 낼 수 있다.

‘백설 1분링’은 물에 녹는 시간을 단축해 조리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동전 형태의 기존 코인육수와 다르게 가운데가 뚫려 있는 ‘링’ 형태로 만들어 끓는 물에서 1분만에 녹는다. 빨리 녹기 때문에 국물요리 뿐만 아니라

조리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볶음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편의성과 함께 맛품질도 높였다. ‘백설 1분링’에는 멸치디포리, 사골 등 핵심 원재료가 전체 원물 원료 중 80% 이상을 차지해 기존 제품에 비해 깊은 맛이 난다. 또한 호박산, 이산화규소, 카제인나트륨 무첨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도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CJ제일제당은 제품 출시와 함께 11월 16일 전국 이마트를 시작으로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 채널에서 최대 50% 할인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사 “해외 성공요인, 직접판매 결정 덕분”

셀트리온 램시마 美 시장점유율 1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723억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직판
2분기 美 매출, 전년비 57.5% 증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직접판매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지 파트너사들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대신 자체 개발한 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을 앞세워 자체 영업망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7일 셀트리온은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723억원, 영업이익 2676억원, 영업이익률 39.8%를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최대 규모다. 매출은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4.1% 늘었고 영업이익도 25.2% 증가하면서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6.7%포인트 늘어난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셀트리온은 3분기에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주력 바이오의약품 점유율을 확대하고 신규 품목의 시장 판매를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품목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아랫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K의 바이오·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경영의 시사점 토론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김병욱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별 고른 매출이 실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램시마 등 주요 바이오시밀러 품목이 견조한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램시마SC, 유플라미마 등 차세대 품목이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 3분기 기준 램시마가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을 29.9%를 기록하며 바이오시밀러 중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트루시마도 29.9%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향후 매출 성장을 이끌 주력 제품의 상업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집

트라’(램시마SC의 미국 제품명)를 허가 받았다. 유일한 SC 제형의 인플릭시맙 치료제로 차별성을 인정받아 신약으로 승인, 출원된 특허가 확보될 경우 오는 2040년까지 경쟁 없는 신약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기존 유럽에서 직접 판매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후속 제품 처방 확대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K바이오팜 역시 미국에서의 직접 판매 결정을 성공 요인으로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

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SK바이오팜이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대형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을 맡기지 않고 SK바이오팜이 자체 판매해 온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SK바이오팜은 국내 최초로 세노바메이트 신약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판매 허가 신청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지난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후 SK바이오팜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미국에

서 세노바메이트를 ‘엑스코프리’라는 제품명으로 출시하고 있다.

특히 이사장은 세노바메이트의 직판 결정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파트너사들이 파격적인 제안을 할 때도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를 직접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분기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매출은 63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7.6%, 전년 동기 대비 57.5% 증가했다. 미국 내 총 처방 수(TRx)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월간 처방 수는 2만1841건으로 경쟁 신약의 출시 38개월 차 평균 처방 수의 약 2.1배 수준을 기록했다.

SK바이오팜은 올해 현지 영업사원 대상 인센티브제도 개편과 최고경영진의 현장 경영 등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를 펼치고 뇌전증 전문의에서 일반 신경전문의로 프로모션 대상을 넓히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신규 처방 수와 월간 처방 수 증가 폭이 상향되는 등 영업 활동이 지속 활성화 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매출 성장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한림대의료원,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 성공 HK이노엔, 산업기술성과서 ‘케이캡’ 선정

최상위 병원 역량 증명해내
개흉수술·전신마취 없어
합병증 위험 없이 시술 가능



천대영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우측으로), 최재혁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고윤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진행하고 있다. /한림대의료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난이도가 높은 심장수술을 성공해 최상위 병원으로서의 역량을 증명하고 있다.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지난 2일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최재혁·천대영·이진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와 고윤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4년 전부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앓아온 75세 여성 환자에게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했다.

한림대의료원에 따르면 환자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숨이 차고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판막을 교체하는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가슴을 절개하지 않고

시술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시술시간이 짧고 통증이 적으며 입원기간도 4~5일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

특히 개흉수술과 달리 심장을 멈추지 않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신마취가 아닌 국소마취나 수면마취를 통해 시술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령의 다발성 질환자도 합병증 위험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최재혁 교수팀은 이번 시술에서 허벅

지 동맥으로 도관을 삽입한 뒤 카테터를 이용해 고장난 판막을 조직판막으로 교체했다. 시술 후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정상적으로 분출되면서 빠르게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최 교수는 “최근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이 고령의 환자에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도 적어졌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국내시장 1위

HK이노엔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HK이노엔은 한국공학한림원이 발표한 ‘2023년도 산업기술성과’에서 ‘케이캡’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공학 및 기술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학술 연구기관이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는 ▲전기·전자 ▲에너지·소재 ▲모빌리티 ▲건설·환경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 총 14건의 우수 기술을 뽑았다.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

제 계열 차세대 약물이다. HK이노엔에 따르면 ‘케이캡’은 약효가 복용 30분 내에 빠르게 발현되고 지속성도 우수하다. 식사시간에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고 6개월 장기 복용 시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점도 특징이다.

‘케이캡’은 지난 2019년 출시된 후 올해 9월까지 누적 처방실적 3503억원을 기록하며 5년 연속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케이캡’은 수출을 통해 전 세계에서 국산 신약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세계 의약품시장 1, 2위 규모인 미국, 중국과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중남미 1, 2위 국가인 브라질, 멕시코에도 진출했다. /이청하 기자

제주삼다수, ‘삼다코지’ 방문객 6만명 돌파

오픈 1년 만에 성과 열어

제주삼다수는 삼다수 플래그십 스토어 ‘카페 삼다코지(삼다코지)’가 오픈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수 6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삼다코지는 삼다수 유통사 광동제약이 제주삼다수 브랜드 체험을 위해 론칭한 플래그십 스토어로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문을 열었다.

삼다코지는 오픈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제주삼다수가 소비자들에게 마치 제주에 온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해온 성과다.

삼다코지에서는 커피와 음료는 물론, 얼음과 탄산수까지 삼다수를 사용하여 제주삼다수가 차와 커피를 우려도 가장 맛있는 물임을 소개하고 있다.

삼다코지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크리스마스 시즌 인테리어를 선보였다.



제주삼다수 플래그십 스토어 ‘카페 삼다코지’ 매장 전경. /제주삼다수

‘크리스마스 저니 투 더 삼다코지’를 콘셉트로 매장 내 특별 조형물과 대형 트리, 포토존을 마련해 동화 속 크리스마스 마을에 여행을 온 듯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위커힐 호텔앤리조트, ‘김장 담그는 날’ 진행

위커힐 수펙스 김치, 직접 담고 맛봐

김장 시즌을 맞아 위커힐 호텔앤리조트는 7일 고객들에게 ‘위커힐 수펙스(S UPEX)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위커힐 호텔앤리조트는 오는 18일과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차산의 가을 풍경과 탁 트인 한강이 펼쳐져 있는 한우 숯불구이 전문점 명월관 가든에서 제7회 ‘김장 담그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

‘위커힐 수펙스 김치 연구소’ 김영석 조리장으로부터 좋은 배추 고르는 법부터 김칫소 준비하기와 버무리기 등 위커힐 수펙스 김치 레시피를 배울 수 있다. 또한 명월관 조리장이 조리하는 나주식 곱탕, 한돈 수육, 메밀 배추전, 철

판 계란말이 등 김장 담그는 날 즐겨 먹는 대표 먹거리를 현장에서 담근 김치와 함께 맛보는 순서가 마련돼, 먹는 재미까지 더한다. 고객들이 현장에서 만든 위커힐 수펙스 김치(5kg)는 보랭 백에 포장해 각자 가져갈 수 있다.

위커힐 수펙스 김치는 조선 후기 서울 및 경기 상류층에서 내려온 전통의 맛을 재현해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위커힐 호텔앤리조트는 1989년 호텔업계 최초로 호텔 내에 위커힐 수펙스 김치 연구소를 설립했다.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사계절 동일한 김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절임 염도, 온도, 시간 등 전 공정을 매뉴얼화해 규격화된 위커힐 수펙스 김치 제조에 성공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S 김호연 작가
무대 시리즈 3

2023 JIWOO PRODUCTION PRESENTS

PLAY

"Rivals in love"

연 戀 적 敵 적



한 여자를 **사랑한**
두 남자의
아이러니 여행기

2023.10.04 - 2023.12.31 대학로 유니플렉스 3관

|원작|김호연 소설 <연적> |프로듀서|황기현 |연출,각색|홍현우 |조명디자인|장영섭 |음향디자인|안형록
|음악감독|정다운 |영상디자인|김태운 |무대디자인|이주은 |제작감독|전예정 |조연출|손연주 |포스터디자인|그라운드워크
|출연|김준희 김규도 김상균 문원주 김동준 서원호 여우린 김단울 장혜민
|주최·제작|극단지우 |기획|제이엘컴퍼니, (주)브라더후드 |후원|나무옆의자
|예매|인터파크 1544-1555 |문의|02-332-4902





삼성SDI-볼보, 전기차 분야 등 전략적 동맹 강화
삼성SDI와 볼보그룹이 최근 '전략적 동맹' 5주년을 맞았다. 양사는 이를 기념하는 동시에 전기차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왼쪽부터)삼성SDI 최윤호 대표이사 사장, 마틴 룬스테드 볼보그룹 회장 겸 CEO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SDI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세계보험협회 '월계관상' 수상
교보생명은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지난 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보험협회(IIS) 2023 글로벌 인슈어런스포럼에서 '2023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왼쪽)이 조쉬 란다우 세계보험협회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이석용 농협은행장, 초등학생 대상 특별 금융교육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7일 강원 태백 장성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이동금융교육' 특별 일일 금융교육 강사로 나서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교생을 저학년·고학년으로 나눠 학년별 맞춤 금융교육이 실시됐다. 실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특별 제작된 대형이동버스(NH wings) 체험 및 환율보드 게임, 일일 은행원 체험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육을 실시했다. /농협은행



코웨이 합창단, '한글 점자의 날' 피날레 장식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한 '제97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축하 공연을 펼쳤다. 7일 코웨이에 따르면 물빛소리 합창단은 행사를 마무리하는 폐막 공연 무대에 올랐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홀로아리랑' 등 계절과 어울리는 감성적인 노래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코웨이

유진기업 '안전보건 점검 가이드' 발간

유진그룹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레미콘 업계의 안전한 근무환경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 점검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에 이어 레미콘 사업장을 위해 유진기업이 발행한 두 번째 안전보건 관련 안내서다. 이번 '안전보건 점검 가이드'는 레미콘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다년간 쌓아온 안전보건 점검 경험과 노하우 및 레미콘 업종에 특화된 점검 가이드를 담았다. /김승호 기자

LG, '부산엑스포 버스' 공개... 파리 전역 누빈다

2030대 '달리는 홍보대사' 활약 루브르박물관 등 대표 명소 운행

LG가 2030년 세계 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둔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알리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LG는 6일(현지시간) 에펠탑 인근 선상카페에 행사장을 마련하고 '부산엑스포 버스'를 공개했다. LG전자 홍보대외협력센터장 유원 부사장과 파리법인장 김혁기 상무 등 임직원과 함께 장성민 대통령 특사 등 정부 관계자도 함께했다. 이번에 공개된 부산엑스포 버스는 대형 버스에 부산 랜드마크와 함께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래핑 광고를 부착하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LG전자와 LG에



LG가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부산엑스포 버스를 공개했다. (왼쪽부터) LG전자 파리법인장 김혁기 상무, 장성민 대통령 특사, LG전자 홍보대외협력센터장 유원 부사장

너지솔루션이 함께 만들었다. 그 밖에도 LG는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과 루브르박물관 등 대표적 명소는 물론 외곽을 달리는 여러 노선 내버스 2028대를 부산엑스포 버스로 꾸몄다. 총 2030대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는 광고를 붙이고 시내 곳곳에서 '달리는 홍보대사'로

그 밖에도 LG는 이달 초부터 파리 곳곳에 300여개 광고판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에 6개 대형 광고판을 운영하기 시작해 파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물론 BIE 위원들에도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과 당위성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LG는 영국 런던에서도 '부산엑스포 버스'를 운영 중이며, 벨기에 브뤼셀의 유동인구가 많은 브뤼셀 중앙역 인근에 대형 옥외광고로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런던과 브뤼셀은 파리와 함께 BIE 회원국대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침수 상황 운전자 살린 콜로라도 한국지엠, '명예 앰버서더' 위촉

박경란씨 명예 앰버서더 동반 위촉 수백만원 상당 주유권 등 축하선물

한국지엠 쉐보레의 중형 픽업트럭 콜로라도가 최고의 안전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지엠은 차량 사고로 1시간 가량 수심 5m 아래 침수된 상황에서 운전자의 목숨을 지킨 콜로라도와 운전자를 명예 앰버서더로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콜로라도의 명예 앰버서더로 선정된 박경란(56·경북 경산시) 고객의 가족은 제트스키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 뛰어난 적재 및 견인 성능을 갖춘 쉐보레 콜로라도 2대를 지난 10월 구매했다. 이후 박 씨는 10월 23일 불의의 사고로 차량과 함께 저수지 아래로 추락했으나 콜로라도의 강한 차량 강성과 뛰어난 수밀성을 통해 형성된 차량 내부의 에어포켓 덕분에 침수 1시간여 만에 수심 5m 아래서 안전하게 구조된 바 있다. 이에 한국지엠은 지난 6일 한국지엠의 헥터 비자레알 사장을 포함한 최고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왼쪽)과 박경란 씨가 지난 6일 더 하우스 오브 지엠에서 콜로라도 명예 앰버서더 위촉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란 씨를 콜로라도 명예 앰버서더로 위촉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주유권, 2년 또는 4만km 보증기간 연장되는 쉐보레 플러스 케어 서비스 등의 축하선물을 전달했다. 헥터 비자레알 사장은 "불의의 사고 상황에서도 박경란 고객님이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어 정말 다행이고, 구조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경북 경산소방서 구조대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GM의 비전과 목적의 핵심은 언제나 안전, 품질, 그리고 세심한 장인 정신에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앙대, 이현순 12대 이사장 취임

신임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이 취임했다. 중앙대는 제12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현순 이사장(사진)이 6일 열린 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에서 기계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울산

과학기술원(UNIST) 이사장, ㈜두산 부회장, 현대자동차 부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한국공학한림원(정회원)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현진 기자 lhj@

롯데칠성음료, '굿디자인 어워드' 석권

롯데칠성음료는 제로 슈거 소주 '새로'가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트레비'가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굿디자인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식이다. '새로'는 브랜드 정체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은상을 수상했다. '트레비'는 스포츠 브랜드 '리복'과 협업한 한정판 패키지로 우수디자인에 선정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진, 그린와플 '애플 스타 어워즈' 수상

한진은 아시아포장연맹(APF)이 주최한 '아시아 스타 어워즈 2023'에서 '에코 패키지' 부문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한진이 지난해 11월 런칭한 '그린와플'은 벌집 모양을 띤 종이 재질의 충격 흡수 포장재다. 그물처럼

폼 촘촘한 형태의 '와플'이 상품이 박스에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잡아주면서도 두툼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어 환경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김승호 기자 bada@

민병규 티트프로 대표, 산업부장관상

건설기계산업 발전 유공 포상식

굴착기용 어태치먼트 제조기업인 티트프로의 민병규 대표이사는 굴착기용 부착장비의 국산화와 시장 개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건설기계산업 발전 유공 포상식'에서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건설기계산업 발전 유공 포상식'은 건설기계 산업분야의 발전 및 기술개발, 시장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산업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행사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에서 주관한다. 티트프로는 자체 개발한 굴착기용 어태치먼트 제품을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 선보였으며, 우수한 성능과 내구성, 그리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양성운 기자

인사·부음

◆BGF그룹 ◇임원 승진 △BGF리테일 영업·개발부문장 황환조 ◇신임 임원 승진 △운영지원본부장 임민재 △2권역장 김현민 ◇신임 본부장·실장·권역장 선임 △상생협력실장 심재준 △마케팅실장 박종성 △5권역장 윤현수 △커뮤니케이션실장 손지욱 ◇계열사 대표 △BGF네트웍스 대표이사 (내정) 연정호 △BGF푸드 대표이사 (내정) 송영

민 ◇계열사 이사 선임 △BGF휴먼넷 이웅선 △BGF로지스 김우희 △BGF네트웍스 이재욱 ◇소재 부문 임원 선임 △BGF에코머티리얼즈 COO 양재석 ▲가기산(전 대전 서구청장)씨 별세 = 7일 오전 3시 30분, 대전 서구 둔산동을지대학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30분. 042-611-3980

PlayStation



FC24



DUAL ENTITLEMENT

THE WORLD'S GAME PLAY NOW

HYPERMOTION
TECHNOLOGY



전제이용가

HyperMotionV 테크놀로지는 PlayStation 5, Xbox Series X|S, PC 버전에만 적용됩니다.

All UEFA Champions League, UEFA Europa League and UEFA Europa Conference League names, logos and trophies are the property, registered trade marks, designs and/or copyright for UEFA. All rights reserved. © 2023 Electronic Arts Inc. Electronic Arts, EA, EA SPORTS, the EA SPORTS logo, EA SPORTS FC, and the EA SPORTS FC logo, Frostbite and the Frostbite logo, and Ultimate Team are trademarks of Electronic Arts Inc. "EA" and "PlayStation"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

GamePia

PLAY HAS NO LIMITS™

경기도, 중유럽 거점 폴란드 교류 물꼬... 경제·관광 등 '맞손'

돌노실롱스키에 주의회와 MOU 기후위기 대응·교육·문화 등 협력 김동연 지사 "협력의 장 활짝 열 것"



6일 오후 롯데호텔 서울점에서 열린 경기도-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 업무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와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 주의회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제, 기후변화, 교육, 문화, 관광 등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폴란드 간 교류를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확대 발전시켜 중유럽 국가와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후 롯데호텔 서울에서 피오트르 오스타세프스키(Piotr Ostaszewski) 주한 폴란드 대사, 안제이 야로흐(Andrzej Jaroach) 돌노실롱스키에 주의회 의장을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우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브로츠와프-인천 직항노선이 며칠 전 개통됐는데 경기도와 돌노실롱스키에 주도 이제 새로운 문을 연다. 사람과 물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직항노선인 것처럼 경기도와 돌노실롱스키에주 간 협력관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오늘의 업무협약"이라며 "경기도는 자동차, 정보기술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허브로, 경제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스포츠, 인적교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서로 협력의 장을 활짝 열고 싶다"고 말했다.

안제이 야로흐 돌노실롱스키에 주의회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며 "양 국가와 두 지역은 강력한 이웃과 가까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양 지역은 경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큰 잠재력이 있다.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돌노실롱스키에 주는 ▲경제 협력, 무역 교류, 노동시장의 상호 발전 ▲기후변화 시대를 위한 환경 보호와 건강한 식품 생산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문화기관 간 협력 ▲지역 관광과 상호 홍보에 대한 협력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폴란드 대사관이 주관한 2부 독립기념일 행사에도 참석했다. 폴란드의 독립기념일은 1918년 11월 11일로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에 의해 분할된 폴란드가 국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날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돌노실롱스키에주 체자리 프리빌스키 주총리가 교류 협력을 제안하면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함께 추진해 왔다.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1989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등 한국기업의 유럽 진출 관문이자 물류 요충지인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경기도는 이번 돌노실롱스키에주와의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지난 3일 주도인 브로츠와프-인천 직항노선 개통을 계기로 경제 협력, 무역 교류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교육·문화·관광 등 활발한 교류와 발전하는 파트너십을 기대하고 있다.

/유진채 기자 yujin@metroseoul.co.kr

수능 후 마약·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화

교육부, 학교 프로그램 작년 2배 확대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학년말 학생 건강·안전 및 금융·경제 교육 등 학내 프로그램을 2배 이상 늘려 제공한다. 수능 이후 느슨해지기 쉬운 상황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7일 발표했다.

수능 이후 학년말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시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원격수업 중심 학사 운영은 지양하고 지역 및 학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단, 실기·면접·논술고사 등 준비를 위한 입시학원 수강 및 승인받지 않은 체협학습 활동 등에 대한 편법적 출결처리는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학교가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올해는 83개 기관이 참여해 17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43개 기관 80개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작년보다 프로그램이 2배 이상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마약문제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밖에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이현진 기자 ihj@

서울시민에 휴대용 SOS 비상벨·경보기

경고음에 112신고까지 기능 갖춰

서울시는 강력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상황시 경찰 도착 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자동 신고하는 기능을 갖춘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킴이'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킴이는 범죄 등 긴급 상황에서 나(me)를 지킨다는 의미이며, 휴대용 SOS 비상벨은 안심 경보기와 함께 한 세트 구성돼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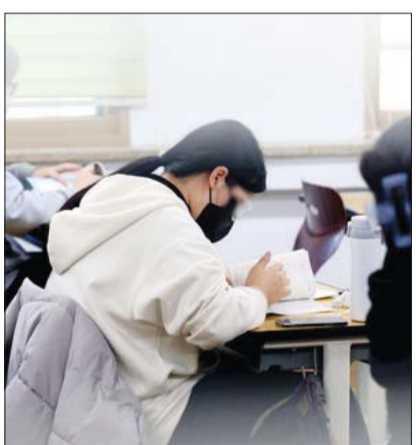
비상벨은 기기를 작동시키면 경고음이 발생(작동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 무음도 가능)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들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를 즉시 발송한다. 또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간단한 작동만으로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켜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위축시킨다.

지킴이는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 1만명에게 우선 지급된다. 시는 현재 비상벨과 경보기 공급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달 말부터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기기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코로나 확진 수험생도 같은 공간서 응시

올 서울 수능 10만7400여명 응시 재학생 53%, 졸업생 43%, 기타 3% 코로나 확진자, 점심만 별도 공간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서울에서 10만 7423명이 응시한다. 올해부터는 코로나나 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일반 수험생은 종이칸막이 없이 점심식사를 먹는 한편, 확진자는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먹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수능 세부 운영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 수능'이라고 불리던 지난 3년간 수능과 달리 다시 일상적인 모습으로 치러지는 첫 수능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분리시험실, 병원시험장이 운영되지 않는다. 방역을 위해 점심 식사 시간에 사용했던 수험생용 간이 칸막이(가림막)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국은 확진자에게 분리 공간에서 식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지만, 확진자나 유증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올해 서울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10만74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58명이 증가한 수치다.

자격별로는 서울지역 기준 재학생이 5만7293명으로 전체 수험생의 53.3%다. 전년 대비 5091명 감소한 수치다. 이밖에 ▲졸업생 응시자 4만 6661명(43.4%, 전년 대비 5262명 증가)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가 3649명(3.2%, 전년 대비 487명 증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시험지구, 230교의 시험장과 4669실의 시험실을 운영한다. 그 중 경증시각, 중증시각, 중증청각,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제공시험장은 4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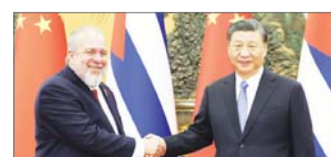
또한 올해는 소년수험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남부교도소에 설치하여 12명의 수험자가 응시하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수험생이 그동안 준비하고 노력해온 소중한 땀방울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hj@



▲70년만에 '킹스 스피치'... 찰스 3세, 영국 의회 개회식서 연설
▲대만,美서 반환된 '장제스일기' 출간... "귀중한 정치 자료" /사진 뉴시스

▲엘런 미 재무장관 "미중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다"
▲10월 중국 수출 6.4%↓... 세계 경기 둔화에 6개월째 감소



▲시진핑, 쿠바 총리 만나 美 견제 "외국의 간섭·봉쇄 반대" /사진 뉴시스
▲"日記시대 지지율 추락에 여당서 '정권 말기느낌' 위기감"



가성비 안방 공략
中 TV
韓, 프리미엄 '자신감'
04



Life

가격인상 효과?
식품업계 대부분
3분기 실적 '好好'
니



“진짜 성장은 지금부터… mRNA백신 생산 플랫폼 곧 출시”

〈메신저 리보핵산〉



이세경의
속깊은 인터뷰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

지난해 11월22일, 인벤티지랩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공모 시장이 얼어붙고, 많은 바이오펀더들이 상장을 미루거나 공모를 철회하던 시기였다. 몸값은 어쩔 수 없이 낮아졌다. 공모가는 희망 가격 하단보다도 37% 낮은 1만2000원으로 결정됐고, 공모주식수는 130만주에서 104만주로 줄어들었다. 최대 338억원을 기대했던 공모 금액도 기대에 한참 못미치는 124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내년에 시장이 나아질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기술에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 대표의 선택은 맞았다. 그로부터 1년, 인벤티지랩 주가는 최고 3만2750원까지 오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치료제 열풍이 불며, 인벤티지랩이 가진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이 주목을 받은 결과였다. 인벤티지랩이 가진 독자적인 ‘IVL-드러그플루이딕(DrugFluidic)®’ 플랫폼은 미세유체법(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에 기반한 약물전달시스템(DDS)이다.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로 만드는 ‘마이크로스피어’에 치료제를 담아 피하 또는 근육에 주사하면 이 마이크로스피어가 몸 속에서 서서히 녹으며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일정량의 약물을 꾸준히 방출한다. 특히 인벤티지랩의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버스트(약물의 급격한 다량방출 현상)’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여 경쟁력이 높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김 대표는 “시장이 분명 기업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아직 인벤티지랩이 가진 독자 기술의 반도 보여 주지 못했다. 진짜 성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10월25일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2023 제약 & 바이오포럼’에 참석한 김 대표를 만나 상장 후 1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은.

“기존에 승인을 받은 약물을 장기지속형 주사제 형태로 개량하거나, 자체 신약을 개발하는 두 가지 방식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우선 개량 신약으로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탈모치료제는 1개월과 3개월로 개발 중이며 현재 국내 임상 3상과 호주 임상 1상·2상을 준비하는 단계다. 지난 10월 중근당에 기술 수출한 치매치료제 IVL3003(1개월 지속형)은 호주에서 임상 1·2상이 진행 중이다. 약물중독 치료제 IVL3004(1개월 지속형)는 현재 호주에서 임상 1상 승인을 받은 상태다. 자체개발 장기지속형 신약으로는 ‘류마티스관절염(IVL4001)’ ‘다발성 경화증(IVL4002)’을 개발 중이며 향후 의료용 대마, 에이즈(HIV)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그 중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파이프라인으로 ‘약물중독 치료제(IVL3004)’를 꼽았다. 인벤티지랩은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제 ‘날트렉손’을 1개월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하고 있다. IVL3004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지원 사업에 선정된 약물이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국내 약물중독 치료제가 전혀 없는 상황인 만큼 IVL3004의 상용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 IVL3004의 개발 현황은.

“현재 진행 중인 호주 임상 1상을 내년 중에 마치고 바로 국내에도 허가를 위한 임상 2상 신청을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마약 중독 치료제는 모두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형 제제이고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약물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인데, 중독자의 특성상 약을 매일 챙겨 먹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실용성이 높아 주목을 받고 있다.”

- 상용화가 빨라질 것이라 기대도 있다.

“날트렉손을 성분으로 한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미국에서 이미 판매 중이며 현재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만 연간 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국내에도 마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며 치료제가 시급하지만 수량이 부족해 전혀 수입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IVL3004는 기존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가진 부작용인 과다방출 없이 완만하게 혈중농도가 한 달간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 이미 글로벌 대형 시장을 통해 비딩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도 마약 전파 속도가 심각하고 치료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 초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가 ‘2023 제약 & 바이오 포럼’에 참석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국내 임상 2상을 통해 조건부 허가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 대표는 지금까지 주목을 받은 비만 치료제와 마약 중독 치료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 큰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유전자 치료제 제조 플랫폼 ‘IVL-진플루이딕(GeneFluidic)’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 공모가 1만2000원 시작 1년만에 3만2750원, 코스닥서 ‘주목’

탈모·치매·류마티스 신약 등 개발 중 ‘약물중독 치료제’ 상용화 가능성 높아

mRNA 약효 낼 수 있는 기술 독자보유 美서 CDMO모델 구축, 내년 중 판매

인벤티지랩이 보유한 마이크로플루이딕은 코로나19로 큰 주목을 받은 mRNA 백신 생산의 핵심이 되는 유체역학 기술이다. 불안정한 물질인 mRNA를 체내로 안전하게 전달하려면 이를 감싸는 지질나노입자(LNP)가 필요한데 이 LNP를 만드는 데도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이 쓰인다. 인벤티지랩은 높은 품질의 LNP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우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생산시설을 직접 구축해 왔다. 김 대표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LNP 연구와 공정 개발은 물론, 대량 생산, 서비스를 포함하는 위탁생산개발(CDMO) 사업을 연내 론칭한다.

-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델은 뭔가.

“마이크로플루이딕이라는 기술을 실제 의약품에 적용한 기업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인벤티지랩은 높은 품질의 LNP를 제조하기도 하지만, 이 LNP가 유전자 치료 물질인 mRNA를 안정적으로 감싸 체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약효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외부에서 인벤티지랩을 장비 회사로 오인

할 정도로, 모든 생산 장비와 연구 장비 등을 내부에서 직접 개발하고 GMP 시설을 구축한 경험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부터 미국 보스턴에 CDMO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플랫폼 자체를 판매하려고 준비 중이다. 연내 국내에서 IVL-진플루이딕 플랫폼 기술을 소개하는 쇼케이스를 갖고, 다시 팬데믹이 올 때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 진플루이딕 플랫폼의 경쟁력은 뭔가.

“회사 내 연구개발팀이 전체 인원의 3분의2를 넘게 차지하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기계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들이다. 전 세계 제약, 바이오 기업 가운데 이런 엔지니어링 팀을 보유한 회사는 매우 드물다. 독자 기술로 만든 DDS를 가진 것도 그렇지만, 모든 장비와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개발했다는 것은 다른 기업에서는 따라잡기 힘든 경쟁력이다. 안정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깊고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김 대표는 기술수출에 대한 로열티 수입이 본격 반영되고, 플랫폼 사업이 가시화되는 오는 2025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에 자신감이 있는 만큼 기업의 가치 또한 빠르게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 앞으로 기업 성장성은 어떻게 보나.

“최근 비만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인벤티지랩 주가도 상승했다. 하지만 당뇨·비만 아이템은 우리가 가진 장기지속형 주사제 파이프라인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부분이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벤티지랩이 가진 가치 가운데 가장 성장성이 큰 부분은 아직 공개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만·당뇨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가진 진플루이딕이라는 플랫폼과 그 사업의 확장성을 소개하고, 연말이나 연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의 시장 파급력은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최근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신약의 기술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파트너 역할을 하고 싶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축구 U-16대표팀, 스페인서 유럽팀과 세 차례 평가전 /사진 뉴시스
▲전북-포항전 몰수패 없다…축구연맹 “심판 책임”

▲FA 최대어 오타니, 퀄리파잉오퍼 제안 받아
▲첫 패배로 끝나지 않을 수도…토트넘에 찾아온 위기



▲이강인, AC밀란 상대로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도전
▲29년 한풀이나 2번째 마법이나…LG vs KT ‘가을전쟁’ 서막 연다 /사진 뉴시스